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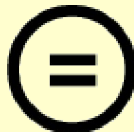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증상과 의미 연구

-1970년대 중·단편을 중심으로-



2011년 0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노 문 숙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증상과 의미 연구

-1970년대 중·단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남 석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노 문 숙

노문숙의 문학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일



주심 문학박사 남송우 (인)

위원 문학박사 조동구 (인)

위원 문학박사 김남석 (인)

목 차

Abstract

I .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4
3. 연구 방법 및 범위	10
II .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	15
1. 정신분석학	15
2. 대상관계이론	21
III . 병리적 원인과 징후의 양상	24
1. 내적 갈등과 신경증	24
가. 탈향과 히스테리	24
나. 자살과 우울증	31
다. 죽음 충동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37
라. 신경증 증상의 의미	44

2. 억압기제로서의 외부환경과 정신증	46
가. 현실에서의 패배와 정신분열증	47
나. 가부장제 사회와 편집증	53
다. 사회적 권력과 정신분열증	60
라. 정신증 증상의 의미	68
 IV. 병리적 증상의 의미와 작가 의식	70
 V. 결 론	76
 참고문헌	79



A Study on the Pathological Problems and Meanings
in the Novels by Lee Cheong-jun
-On the basis of Medium · Short Novels of 1970's-

Nor Moon-soo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Novelist Lee, Cheong-jun wrote his works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human psychology or consciousness greatly affects our lives, and has tracked the conflicts and struggles between the external world and our inner world. In addition, he tried to convey the fact that the characters' actions are not only greatly influenced by the external stimulus, but also their authentic inner characteristics. This understanding through the description of characters in the works of Lee shares many similar traits with Freud's psychoanalysis, which proved the understanding human by acknowledging and treating individual wounds.

Freud's psychoanalysis tracks down the origin and process of the symptom to find the fundamental problem. The object relations theory is a useful methodology which proves that the co-existence and fusion of child with the first object mother greatly influences the thereafter human relation building. Just as Freud took importance on the distortion of characteristics development through mental illness, Lee also concentrated on observing the origin of the pathological symptoms and reasons. Accordingly in order to seek the

pathological symptoms and reasons in Lee's novelettes, Freud's psychoanalysis and the object relations theory were utilized in this study.

By standardizing Freud's psychoanalysis and the object relations theory for Lee's work analysis, analysis on characters who show neurosis due to inner conflict between ego and id was taken in Passage I of Chapter III. The representative symptoms of neurosis include hysteria, OCD, and depression. In Passage II, observation on characters who show symptoms of psychosis due to external environment which oppress individuals was taken. Psychosis is taken due to conflict between the ego and the external world, with representative symptoms such as schizophrenia and paranoia. In Chapter IV, the intention of Lee's works on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 modern people are observed by explaining the meanings of the characters' symptoms in terms of the society and the individual.

The analyzed works were limited to novelettes published in the 1970s, extracted from 『Complete Literature Series of Lee, Cheong-jun』 (Yolimwon). The reason for selecting novelettes of Lee in the 1970s was that it succeeded in visualizing the social and historical pains through the wounds of individuals living in authoritative and oppressive generation. The works for specific analysis include 「The Wall of Rumor」 (1972), 「The Dream of the Mask」 (1972), 「Seokhwachon」 (1972), 「Practicing of Returning Home」 (1972), 「Ecstatic Missing」 (1976), and 「Winter Agora」 (1976). The observation of characters who suffered from neurosis due to inner conflict between ego and id were observed in 「Practicing of Returning Home」, 「The Dream of the Mask」, and 「Seokhwachon」. The observation of characters who suffered from psychosis due to repression mechanism was observed in Ecstatic Missing」, 「Winter Agora」, and 「The Wall of Rumor」.

The characters in Lee's works are all part of the world's algorithm and specific individuals at the same time. The author encourages the readers to

sympathize with the characters by depicting the objects in the perspectives of the characters. This sympathizing is an useful tool in creating the identity for readers. The reader pr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er and external environment which oppress the lives of modern people and human. To this end, this study will provide a time to contemplate in creating a better living environment along with the author.

Keyword: Lee, Cheong-jun, Psychoanalysis, Object relations Theory, Neurosis, Psychosis, Inner Conflict, Repression Mechanism



I. 서론

1. 연구 목적

이청준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상처의 아픔과 기원의 실상, 그 징후의 참 의미를 따뜻한 관심으로 되풀이해 드러내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내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척 많다. 그는 작중 인물의 내면적 고통과 파탄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객관적이고 건조한 시선으로 진술한다. 그의 소설은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과정을 완결시켜 결론을 내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둔다.

우리는 이청준의 소설이 단순한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소설을 통해 해방을 연습하고 연출함으로써 끝내는 진실을 확보하는 희망의 근거지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청준 소설은 있었던 현상과 현실을 단순히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현상 이면의 영혼의 본질과 삶의 실체에까지 육박해 들어가면서 매우 소중한 암시와 웅숭깊은 상징의 밑자리를 보여준다. 멧힌 현실을 말로 열고 소리로 풀어 영혼의 자유를 넉넉하게 확보하려한 그의 소설적 노력은 그 자체로 우리 삶과 문학의 값진 진정성의 표지가 될 것이다.¹⁾

「퇴원」은 병리와 증후의 상징성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청준 문학의 ‘입원기(入院記)’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그의 소설 세계는 애브노멀한 병에의 관심과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 부여로부터

1) 우찬제, 「힘의 정치학과 타자의 윤리학」,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8, 451면.

출발한다.²⁾ 인물의 병리적 증상에 대한 탐색은 등단작에서 선보이고 있을 정도로, 그는 개인의 병리적 현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청준은 그의 작품에서 인간의 심리나 의식이 삶을 이루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외부세계와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투쟁을 면밀히 추적하여 보여준다. 또 인물의 행동이 외적 자극뿐만 아니라 인물의 고유한 내적인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작가³⁾ 칭호를 받는 이청준의 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인물의 증상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970년대는 약 30년 동안 지속된 군부중심의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에 있어 그 절정기에 해당한다. 유신시대의 지배체제가 사람들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저해하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데 대해 당대 소설가들 대부분이 집요하고 강경한 태도로 비판을 가하였다.⁴⁾ 유신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억압과 혼란은 이청준 문학의 방향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다. 60년대 이청준 소설은 개인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현실세계의 억압적 요인들은 소위된 개인의 내면과 대립되는 부정의 대상이다. 반면 70년대 소설에서는 각 계층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적인 성찰을 개진해 나가고 있다. 범박하게 말해 70년대 군정유신체제가 개인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가장 억압적인 시기라고 규정하면, 70년대 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는 병리적 증상과 원인을 탐색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개인의 내

2) 이재선, 「현대소설의 병리적 상징」,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6, 210면.

3) 『신화를 삼킨 섬』에서 보듯 이청준은 정치적 억압의 비극을 신화급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그 신화의 바탕이 아직도 이 땅 이 겨레의 터전 안에서의 일이기에 이청준은 국민작가일 수 밖에. 김윤식, 「이청준」, 『우리시대의 소설가들』, 강, 2009, 394면.

4) 이동하, 「유신시대의 소설과 비판적 지성」,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16-17면 참조.

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망을 해명하기 위해 이청준의 70년대 소설에 주목하게 되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하나의 정신적 구조를 시간적으로 그보다 선행하고 그 구조가 발전되어 나온 또 다른 구조로 추적해 들어가는 학문이다. 즉 증후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다. 이청준 소설 또한 인물의 회상이나 화자의 서술을 통해 유년기의 원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프로이트가 정신적 외상으로 말미암은 성격 발전의 왜곡을 중시했던 것처럼 이청준은 작중 인물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왜 그들이 좌절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집요한 탐구를 했다. 둘은 공통적으로 유년의 충격적인 경험과 무의식적 동기나 갈등과 관련된 심층 심리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궁극적 관심은 무의식적 정신 작용과 근본적인 욕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⁵⁾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사유의 범주 내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의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무한한 문학적 상상력의 지평과 맞닿게 된 것이다. 소설은 조작된 허구의 인간관계 위에 더욱 정교하게 세워지는 또 하나의 허구이다.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소설가에게 그것은 현실의 전부일 수 있다. 이로써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소설의 허구 세계는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신경 질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거대한 사회제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신경증 자체는 충족되지 못한 소망들을 보상하는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로 판명되는 반면, 제도는 동일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⁶⁾ 정신분석학은 심리학적 요인에다가 개인의 기질적인 요인의 영향도

5)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4, 40면.

함께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의 주요한 기제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 개인 속에 생겨난 긴장으로부터 개인을 구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청준 소설 속 작중 인물에 대한 정신분석을 통하여,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는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아의 분열을 가져오는 내적 갈등, 인간을 억압하는 외부 세계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작중 인물의 증상이 사회적·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해명함으로써, 현대인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작중 인물들은 세계의 알레고리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개인들이다. 작중 인물에 대한 탐색은 곧 동시대인들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작중 인물에 대한 일련의 분석 결과는 궁극적으로 동시대 사람들의 신경증·정신증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병리적 현상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인물의 증상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의미망을 해명하는 데 있다.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이청준은 삶의 진실과 소설의 진실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한다. 그에게 있어서 소설과 삶은 서로 맞물고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관계를 이룬다. 작가가 직조한 정교한 허구의 세계가 바로 현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작가

6)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한승완 옮김, 「과학과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9, 38면.

는 소설이라는 환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마음껏 펼쳐 보인다. 특히 이청준의 소설 세계는 ‘육중한 서사의 몸을 갖되 오히려 서사를 통해 끊임없이 그 몸의 무게를 덜어내 끝내 그 몸이 다한 곳에서 가능성으로 가볍게 기화하는 정당한 정신의 세계’⁷⁾라고 할 수 있다.

이청준은 1965년 『사상계』에 단편 「퇴원」으로 등단한 이래 2007년 타계하기까지 꾸준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그의 소설 세계는 고향 탐색, 예술과 현실의 갈등, 이상향의 추구, 말과 소리의 근원적인 추구, 사회 현실에 대한 개인의식의 뚜렷한 부각 등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작품의 다양한 양상 속에서 정신이상을 다룬 소설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인물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병리적 징후를 드러낸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존의 연구⁸⁾는 다음과 같다. 김현⁹⁾은 에리히 프롬이나 카렌 호니 식의 사회적 정신분석학으로 이청준 초기 소설의 인물을 분석하였다. 작중인물들은 유년시절 가족 관계의 비정

7) 권오룡, 「책을 내면서」,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XVI면.

8) 이청준 소설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석사학위 논문은 아래와 같다.

서경희, 「이청준소설 연구: 작중 인물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1999.

장미애, 「이청준소설에 나타난 정신분열증의 사회적 의미연구- 「병신과 머저리」, 「소문의 벽」, 「황홀한 실종」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0.

이경옥, 「이청준소설의 인물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이혜성, 「이청준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작중인물이 유년시절 정신적 외상을 가진 작품을 중심으로」,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2002.

주지영, 「이청준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변모양상과 주체의 동일화」,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상은, 「이청준 초기소설 연구- 「병신과 머저리」, 「소문의 벽」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5.

이미경, 「이청준 소설연구-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의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7.

고귀옥, 「이청준소설 작중인물의 정신병적 증후와 문학적 의미연구- 「병신과 머저리」, 「황홀한 실종」, 「조만득 씨」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유석, 「이청준 초기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9.

9) 김현, 「장인의 고뇌」,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1, 375-376면 참조.

상성 때문에 정신적 외상을 입어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심한 간극을 보여준다. 작중인물은 ‘기본적 불안’에 시달리는데, 그 불안은 유년시절에 경험한 극심한 사회·문화적 변동의 영향 밑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들의 불안은 인간 내부에 잠재해 있다는 노이로제적 경향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탐구이며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김현의 분석은 작중 인물의 사회·문화적 상관성은 깊이 있게 응시한 반면, 인간의 내면적 갈등에 의한 정신적 문제는 소홀히 한 아쉬움이 있다.

이상우¹⁰⁾는 분석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의 일반원리를 응용하여 이청준 작품 내의 심리적 역학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이청준 소설 속 인물의 욕구 불만·갈등·부적응·불안의 문제는 모태회귀, 죽음 충동 등의 근원적인 욕구와 관련 있다. 이청준 소설의 인물이 불안에 떨거나 우울해하는 신경증 경향은 유년기 또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외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신적 외상은 어른이 되어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욕구나 경험이 떠올라 여러 가지 신경증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작중인물이 좌절을 겪는 것은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의 표출이라는 시각은 김현의 분석과 상당 부분 대치되고 있다. 이상우는 무의식적 상태로 억압되어 있는 정신적 외상에 충격을 가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상관성은 약화시키고 있다.

이재선¹¹⁾은 60년대 이후 ‘당대의 한국소설 가운데 광기나 정신분열 현상 및 의식의 심층적인 증후군에 대해서 가장 각별한 문학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형은 이청준 소설의 공간’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청준 문학의 사회적 병리의 원인은 부성사회의 규범과 처벌이 절대화된 가족주의이며, 다

10) 이상우, 「정신적 외상과 성격 발달의 왜곡-이청준 소설의 세계-」, 『현대소설론』, 양문각, 1993. 283-316 참조.

11) 이재선, 앞의 책, 230-241면 참조.

른 하나는 옥죄는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작중인물의 정신병리 현상의 뿌리는 가족관계나 유년기 및 과거의 불안 경험에서 연유했으며, 이것은 다시 사회적인 불안의 맥락관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청준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전쟁의 공포, 정치적 금제,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와 역사의 환기를 위한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김현과 이상우의 관점을 아우르고 있는 이재선의 시각은, 인물의 분석에 있어 김현 쪽에 가깝게 기울고 있다. 이재선은 인물의 병리적 증상의 배후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김인경¹²⁾은 조세희·최인호·이청준의 70년대 소설을 비교분석하는 논문에서, 자본논리와 인간소외의 시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의식의 표출과 비판을 시도한 것이 70년대 소설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청준소설에 등장하는 병리적 징후를 지닌 인물들은 일탈적인 행동을 통해 근대적 주체로서의 개인의식의 발현을 시도하고 있다. 「소문의 벽」, 「황홀한 실종」의 환자들은 정신병, 실종, 과대망상 등과 같은 일탈의식으로, 「가면의 꿈」에서는 가면·자살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존재확인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김인경은 병리적 징후를 지닌 인물들의 일탈적인 분열 양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회의 구조와 가족 관계, 그로 인한 영향 관계를 면밀히 분석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인경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일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 가족관계의 영향 관계를 면밀히 분석·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작품 분석에서는 70년대 산업사회의 모순, ‘병원’의 상징성을 통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감이 있다.

최종배·조두영¹³⁾은 이청준의 연작소설 ‘남도사람’ 등장인물의 행위 동기

12)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조세희, 최인호, 이청준을 중심으로」, 한성대 박사학위논문, 2008, 152-156면 참조.

13) 최영배·조두영, 「이청준 연작소설 ‘남도사람’에 대한 정신역동적 고찰(考察)」, 『신경

를 정신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인공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적개심과 죄책감, 의붓아비에 대해서는 살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학동 나그네’와 ‘새와 나무’를 거쳐 갈등은 해결되고 안정된 어머니상의 내재화에 이르게 된다. ‘다시 태어나는 말’에서는, 온전한 자기 자신을 확립하고 나서 이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이란 무의식적 공격성과 그로 인한 죄의식이 함께 있는 갈등상태이며, 이러한 정신 내적 갈등이 해소되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최중배·조두영은 동시대 사람들의 무의식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가정 하에 작중인물의 내적갈등과 이를 풀어내고 승화하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리꾼 일가의 갈등과 해소를 통해, 개인적 맥락을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성경의 연구¹⁴⁾는 이청준 소설 전체를 관류하는 서사 원리가 외디푸스 서사구도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초기·중기·후기에 대한 외디푸스 서사구도를 통해 ‘아버지의 자리’에서 비껴남으로써 영원히 미성년자로 남으려던 아들은 복잡한 추상화의 경로를 거쳐 신성화된 어머니에게로 회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청준 소설을 관통하는 서사원리¹⁵⁾를 찾아내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김성경의 연구 결과는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정신의학』 제 35권, 6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6, 1421면.

- 14) 이청준 소설의 외디푸스 서사란 현재의 ‘아버지의 자리’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새롭게 아버지의 질서를 세우려 하지 않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립구도를 의미한다.

김성경, 「이청준 소설연구-외디푸스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1, 117-125면 참조.

- 15) 2000년대 들어 초기의 관념소설, 후기의 귀향형 소설을 통합하여 이청준 소설을 관통하는 서사 원리를 찾아내는 연구는 아래와 같다.

김성경, 「이청준 소설연구-외디푸스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소륜, 「이청준소설의 환상성 연구-‘모성’ 추구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후기의 신성화된 어머니에게로 회귀한다는 결론은 기존의 귀향형 소설에서 도출해내는 결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감이 든다.

최종배·조두영, 김성경은 이청준소설의 작중인물은 어머니·여동생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 아비에 대한 경쟁의식·살의 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무의식적 욕동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최종배·조두영이 인물의 무의식적 갈등을 한국적 정서인 ‘한’에 대입하여 풀이한 것은 신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승준¹⁶⁾은 이청준 소설이 근본적으로 소망충동과 현실사이의 갈등이라는 이항 대립적 세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작중 인물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신경증, 환상, 예술의 핵심 방어기제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신경증은 현실 도피 수단이며, 환상은 위안과 화해의 가능성을, 예술은 승화와 자유의 양식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추출에 있어서 작가의 창작 심리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상 이청준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병리적 현상이 유년기에 형성된 불안, 정신적 외상, 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관이 깊다. 둘째 무의식적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방어기제, 일탈행위, 자기 확립 등의 다양한 양상이 드러난다. 셋째 시대나 사회의 환경론적인 의미성과 깊이 연관 있다.

이청준 작중 인물들의 정신적 상처로 인한 병리적 징후의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상당한 문학사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들은 인물의 병리적 이상심리에 집중

16) 이승준, 「이청준 소설의 현실 대응 방식」, 『이청준 소설 연구-정신분석학 관점에서』, 한국학술정보, 2005, 171-178면 참조.

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청준 소설의 사회적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소설에 반영된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 이청준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탐구가 미흡한 면을 보여준다.

둘째 이청준 소설에 대해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외부 세계의 압력-인물의 정신적 증후나 이상 증상-증상의 회복 가능성 시사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작품 해석을 획일화한 경향이 있다. 소설이 대부분 열린 결말을 지향하고 있지만, 인물의 회복은 종종 연기되거나, 회복자체가 불가능하여 파국으로 치닫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을 활용하여, 이청준소설의 작중 인물에 대한 병리적 증상과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은 커다란 의미에서 심리학에 속하는 것이며, 치료적인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의 사상과 이론을 응용한 치료기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도 치료를 위한 의학적 정신분석은 배제하고 인간탐구 수단으로 정신분석학¹⁷⁾을 방법론으로 택하기로 한다. 정신병리학적 분류는 크레펠린¹⁸⁾에 의한 정상과 광기의 구분에서부터, 프로이트의 신경증

17) 정신분석을 심리학으로 볼 것이냐, 정신의학으로 볼 것이냐의 논란은 정신분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정신분석은 인간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 또는 이론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심리학에 속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기법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정신의학에 속한다. 최창호,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분석」,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동녘, 1996, 243-244면.

18) 크레펠린(1856-1926)은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

과 정신증, 증상 신경증 대 성격 신경증이라는 초기 정신분석 개념을 거쳐, 신경증, 경계선, 정신병의 구조를 강조하는 현대분류 체계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학적 구분을 프로이트의 신경증, 정신증의 이원화된 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작중인물의 병리적 현상¹⁹⁾의 원인과 증후 분석을 위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이청준의 작중인물을 분석하기로 한다.²⁰⁾

1970년대 유신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억압과 혼란은 이청준 문학의 방향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다. 60년대 이청준 소설은 당대의 시대적 아픔을 자각해 내기는 했지만 환부가 없는 개인적인 측면에 비중을 둔 아쉬움이 있는 반면, 70년대 소설들은 개인만이 아닌 각 계층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다.²¹⁾ 차혜영은 이청준 소설의 60·70년 비교분석에서 ‘60년대에는 어두운 세계로 뭉뚱그려진 채 소외된 개인의 내면과 대립되는 부정의 대상으로만 그려지던

여 정신장애의 증후군들을 공통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현대 진단 분류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프로이트는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기술하는 크레펠린의 용어들을 많이 수용했지만, 기술과 단순한 수준의 추론을 넘어서서 좀 더 심오한 이론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낸시 맥윌리엄스, 정남운·이기린 옮김, 「성격조직의 발달 수준」, 『정신분석적 진단-성격구조의 이해』, 학지사, 2008, 70-71면 참조.

19) 무엇이 정신병리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은 관점에 따라 다른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심리성적 고착과 리비도의 긴장을 적절히 방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지행동수정 관점에서는 환자가 사건들을 잘못 해석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됨으로써 정신병리가 발전된다고 보고 있다.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정신병리가 환자의 존재경험의 불일치에서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자기구조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셀던 캐시던, 이영희 외 옮김, 「대상관계 병리」, 『대상관계 치료』, 학지사, 2005, 101면.

20) 정신분석학적 문예학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문학 창작과정에 대한 접근을 작가의 창조성과 결부시켜 여러 측면에서 시도해 보려는 연구, 둘째 문학의 수용을 정신분석학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정신분석학적 수용이론의 단초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프로이트의 모범적인 연구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추구하는 연구들이 있다. 허창원 외, 「정신분석학과 문예학」, 『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 민음사, 1997, 16-17면 참조.

21) 김인경,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19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26집, 한성대학교출판부, 2007, 329-330면 참조.

현실 세계의 억압적 요인들이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체적 지적인 성찰을 개진해 나간 점'이 특징이라고 주장한다.²²⁾ 70년대 이청준 소설은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저변이 확대되었으며,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하던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성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청준은 '중·단편 소설의 충실한 세부는 견고한 전체구조(삶과 소설의 총체적 의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긴 글보다는 야무지게 구조된 짧은 글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고백한 바 있다.²³⁾ 작가의 말처럼 이청준의 중단편소설은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 작품들이 많다. 이청준의 70년대 중·단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 시기의 작품들이 개인적인 환부를 통해 사회·역사적 아픔도 표출한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패배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자신을 밀실로 유폐시키는 인물을 다룬 「황홀한 실종」, 성공적인 외부 세계와 불안정한 내면 세계와의 괴리감 때문에 자살하는 「가면의 꿈」의 지옥은 개인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을 띠고 있다. 작중 인물의 증세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한다면, 70년대 이청준 소설은 억압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고통과 외부세계와의 갈등 형상화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문학연구의 출발점에 늘 프로이트가 놓이게 되는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정신분석학의 기원이자 모든 정신분석학적 연구의 테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일찍이 인간 영혼의 심층을 탐험하고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고 억압하는 개인적·사회적 기제를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 틀과 방법²⁴⁾ 및 도구로 정신분석학을 구축하였다. 정신분석학은 사실을 추구하는

22) 차혜영, 「예정된 소멸을 통한 비극적 제의의 형식-이청준의 「매잡이」에 대하여」, 『한국현대소설의 주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4, 41면.

23) 이청준, 「중단편 혹은 짧은 글에 대한 생각」,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6, 375-376면.

24) 그가 택한 과학적 방법론은 신경생리학이었다. 유동하는 정신현상을 신경생리학적으로

것이 아니라, 기억의 공백과 왜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²⁵⁾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정신의 여러 부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고 개인과 세계 사이를 더 낮게 조정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²⁶⁾ 그는 무의식적 정신 작용과 근본적인 욕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인식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을 통하여 소설 속 인물들이 갖는 증상을 규명하겠다. 둘째 증상이 발생하게 된 내면의 갈등, 외부세계와의 갈등을 추적하여 병리적 증상의 의미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병리적 증상이 내·외적 세계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밝히겠다.

분석 대상 작품은 『이청준 문학전집』(열림원)에 실린 중·단편소설²⁷⁾ 중 70년대 발표작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본고에서 다룰 분석대상 작품은 「소문의 벽」(1972), 「가면의 꿈」(1972), 「석화춘」(1972), 「귀향 연습」(1972), 「황홀한 실종」(1976), 「겨울광장」(1979)이다. 「귀향 연습」, 「가면의 꿈」, 「석화춘」은 내적 갈등으로 신경증을 앓고 있는 인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탐구해보기로 한다. 「황홀한 실종」, 「겨울광장」, 「소문의 벽」에서는 억압기제로 인하여 정신증을 앓고 있는 인물에 대해 탐색해보기로 한다.

작가는 작중 인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과

접근하다 보니 인과론적 결정론, 기계론적 환원주의 등 그 후 그를 따라 다니게 되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시도를 포기했다. 박찬부, 「해석학과 에너지론 사이 -프로이트의 무의식론」, 『기호·주체·욕망』, 창비, 2007, 26면.

25) 임진수, 「덧개-기억에 대하여」, 『환상의 정신분석』, 현대문학, 2005, 55-57면 참조.

26) 레슬리 스티븐슨·데이비드 헤이버먼, 박중서 옮김, 「프로이트 정신의 무의식적 기반」,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갈라파고스, 2006, 299면.

27) 열림원에서 출간한 『이청준 문학전집』에 실린 중·단편 소설은 총 87편이다. 이중 1970년대에 발표한 중·단편 소설은 38편이다.

의 동일시를 촉진시킨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동일시는 독자가 정체성을 창조하도록 작용한다. 소설 속 인간의 내면적 아픔, 고통은 바로 현실 속 인간의 삶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현대인의 삶을 짓누르는 내·외적 환경과 인간의 관계망에 천착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환경 조성을 작가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

1. 정신분석학

16세기 근대 과학의 탄생은 정신분석의 출현이 가능하게 했다. 18세기에 메스메르의 학설은, 종교와 마법의 영역에 격리되어 있던 막연한 현상들을 과학적인 담론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현대 의학은 19세기에 탄생했다. 비샤가 창시한 임상해부학 방법은 혁명적이었으며, 이로써 의학은 육체를 재규정하고, 신문(訊問)의 양상을 떠는 환자와의 의료 면담이 중요시된다. 바로 이 시기에 피넬이 등장하면서 현대 정신 의학이 태동했다.²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²⁹⁾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³⁰⁾ 첫 단계가 『꿈의 해석』이 출판된 1900년경으로 이른바 ‘지형학적 이론기’이다. 이때는 주로 의식·무의식, 명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등의 대극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1923년 『자아와 이드』에서부터 비롯된 ‘제2의 지형학적 이론’ 혹은 ‘구조이론’기이다. 이 때는 자아와 자아이외의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이른바 ‘포스터 모던’정신분석학으로 주체의 상호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한 인간 개체 내의 정신구조를 따지던 전 단계

28) 알랭 바니에, 김연권 옮김, 『정신분석의 기본 원리』, 솔, 1999, 14-16면.

29)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기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개인적으로 습득한 학문적 지식, 문학적 교양, 의사이자 생물학자로서의 경력이며 다른 한편은 빌헬름 플리스와의 관계이다. 빌헬름 플리스는 베를린에서 꽤 명망있는 의사였으며 그의 연구 업적은 프로이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가 ‘나의 또 다른 자아’라고 부를 정도로 플리스는 프로이트에게 이상적 존재였다. 알랭 바니에, 김연권 옮김, 위의 책, 27면.

30) 박찬부, 「문학과 정신분석학」, 『현대정신분석 비평』, 민음사, 1996, 80면.

와는 대조적으로, 정신분석학의 초점을 마음과 마음,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원론적 사유체계를 유지하였다. 갈등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의 이원론적 생명관은 지형학적 이론에서 말하는 (전)의식/무의식, 구조이론에서 말하는 (초)자아/이드, 본능에서 내세우는 죽음본능/생명 본능이다.³¹⁾

이원론적 사유체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무의식·전의식·의식의 삼중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쾌락원칙을 추구하는 원초적 충동에 대한 억압이 작동하는 것과 더불어,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된다. 무의식은 잠재되어 있으나 의식화될 수 있는 전의식과 억압되어 있으며 의식화될 수 없는 무의식 두 종류로 나뉜다. 의식은 정신 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무의식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 현실이 갖는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의식’의 중요성 또한 증가한다. 무의식의 정신과정은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내적 욕구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기관은 무의식적 환각을 포기하고, ‘현실원칙’을 설정한다.³²⁾ 자아의 자기 보존 본능의 영향 하에서 쾌락원칙은 현실원칙에 대치되는 것이다.

어떤 관념이 의식화되기 전에 존재한 상태를 억압이라고 부른다. 억압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방어기제가 아니라 의식의 정신 활동과 무의식의 정신 활동 사이에 확연한 간극이 생길 때 발생한다.³³⁾ 억압은 유년기에 처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억압의 본질은 어떤 것을 의식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

31)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해설」,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0, 509-513면 참조.

32) _____, _____, 위의 책, 12-15면.

33) _____, _____, 위의 책, 139면.

여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억압이론으로부터 무의식 개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억압된 것은 무의식의 원형이다.

프로이트는 그의 연구 후반기에 조화 되지 않은 본능적인 경향은 이드, 조직된 현실적인 부분은 자아, 비판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은 초자아라는 정신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드, 자아, 초자아는 각기 다른 정신 원칙과 기능 및 목적을 갖는다. 이드는 쾌락 원칙을, 자아는 현실 원칙을, 초자아는 도덕 원칙을 추구한다. 자아는 정신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위로부터 초자아의 명령과 아래로부터 이드의 충동, 그리고 외계로부터 오는 현실의 요구를 중재하고 조종하는 일종의 통제탑 역할을 한다.³⁴⁾ 자아가 근본적으로 외부세계나 현실의 대변체인 반면, 초자아는 내부세계나 이드의 대변체로 존재한다. 자아와 이상 사이의 갈등은 현실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외부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의 대조적 성격을 반영한다.³⁵⁾

죽음 본능은 자기보존본능/성적본능으로 대표되는 1차 모델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본능이다. 죽음본능은 유기적 생명체를 생명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고자하는 생명체의 근원적 본능의 하나이다. 즉 본능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자신의 가장 큰 불행인 생명의 종식을 추구한다. 모든 생명체는 이 내적 근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는 것이다. 죽음본능에 비해 자기보존본능은 보잘 것 없는 작은 것이다.

이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이원론적인 사유체계를 살펴보았다. 다음 작중 인물을 분석하기 위한 병리적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프로이트는 정신 병리를 인식이 가능한 신경증³⁶⁾과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한 정신

34)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앞의 책, 520면.

35) _____, _____, 앞의 책, 378면.

36) 프로이트는 성기능 장애로 인한 불안증과 신경 쇠약 같은 증상에 대해 실제신경증이라

증의 두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신경증은 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생겨난 갈등의 결과인 반면 정신증은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난 비슷한 장애의 유사한 결과이다. 신경증과 정신증이 생겨나는 공통된 병인은 어린 시절의 소망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좌절되었거나 충족되지 못한 데 있다. 이 갈등은 유아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갈등을 일으키는 긴장 속에서 질환이 생겨나는가의 여부는 자아가 외부세계에 대항하는 본연의 임무를 지켜 이드를 침묵시키려고 하느냐 또는 이드에 굴복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분리되느냐에 달려 있다.³⁷⁾

신경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리와 개별화는 성취했지만 오이디푸스 드라마를 전형으로 하는 갈등, 즉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 처해 있다.³⁸⁾ 신경증³⁹⁾의 대표적 증상에는 히스테리, 강박증, 우울증 등이 있다. 히스테리는 억압된 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들은 무의식적 욕망과 억압 사이에서 심적 갈등이 전환되어 신체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강박증은 관념, 행동, 의식 등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강박증은 정신과 관련이 깊으며 불합리하다는

는 용어를 사용하고, 초기 아동기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의식적 갈등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정신신경증으로 지칭하여 둘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불안이론이 제시된 1926년 이후부터 실제신경증이라는 용어는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신경증과 정신신경증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신신경증을 신경증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미국정신분석학회(편), 이재훈 외 옮김, 『정신분석 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247면.

37)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옮김, 「신경증과 정신증」, 『정신병리학의 문제들』, 열린책들, 2009, 190-193면 참조.

38) 낸시 밀월리엄스, 정남운·이기련 옮김, 「성격조직의 발달 수준」, 『정신분석적 진단-성격구조의 이해』, 학지사, 2008, 82면.

39) 신경증은 사고, 느낌, 태도, 행동에서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는 병리적 범주를 일컫는다. 신경증이라는 용어는 다수의 정신병리적 실체에 적용된다. 신체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과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감각 그리고 불수의적인 움직임-히스테리;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서와 무드-불안신경증이나 우울증; 특정사고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하기-강박충동적 신경증; 비합리적 두려움에 기인한 적응 행동의 제한-공포증 등이 있다. 미국정신분석학회(편), 이재훈 외 옮김, 앞의 책, 453면.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초자아(양심)가 자아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 우울증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 성향 때문이다.⁴⁰⁾ 자살 성향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사디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디즘과 증오는 주체 자신의 자아에게로 환원된 사디즘과 증오라 할 수 있다.

정신증⁴¹⁾은 자아와 리비도의 심한 퇴행으로 인해 심각한 성격의 분열을 가져오는 정신질환의 한 형태이다. 정신증은 현실을 자기 식으로 구성하려고 하며 현실과 자아와의 경계가 없다. 정신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융합 수준, 즉 분리 이전의 수준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신증은 신체적 질병에 속하는 매독성 마비, 뇌종양 등과 심리 사회적 요소들과 관련된 사고장애로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이 있다.

정신분열증은 정신증의 한 형태로 정서적인 우둔, 즉 외부세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이끌린다.⁴²⁾ 또한 인지, 사고, 정서, 행동 등 인격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특이한 와해를 일으키는 상태로 증상은 환각, 망상, 와해언어 및 사고 장애 등과 같은 양성 증상과 감정의 둔화, 사고의 빈곤함, 사회적인 철수와 같은 음성 증상으로 구분된다. 이 증상들 때문에 직업적인 수행이나 사회적인 기능 손상이 심각하다.⁴³⁾

편집증⁴⁴⁾은 만성적, 계통적, 정신 착란이다. 편집 망상의 형태는 콤플렉

40)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앞의 책, 256면.

41) 정신증은 기질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의 두 부류로 나뉜다. 전자는 신체적 질병에 속하는 매독성 마비, 뇌종양, 동맥경화증이 있고 후자는 주로 심리 사회적 요소들과 관련된 정동장애(조울증적정신증)와 사고장애(정신분열증과 편집증)가 있다. 정신증의 현상학적 특징들로는 기괴한 행동, 망상적 생각, 부적절하고 불안한 정서적 반응, 철수, 현실감과 현실 검증 능력의 심각한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정신분석학회(편), 이재훈 외 옮김, 앞의 책, 466면.

42)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옮김, 앞의 책, 192면.

43) 최정운 외, 「정신분열증」, 『이상심리학』, 학지사, 2006, 274면.

44)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옮김, 「리비도 이론과 나르시시즘」, 『정신분석

스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형성되는 기제 혹은 억압이 일어나는 기제에 의해 결정된다. 편집증의 형식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애정망상, 질투망상 등으로 서술된다. 과대망상은 대상 리비도 집중이 퇴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파생된 자아의 확대로 간주되기도 하고, 근원적인 유아 초기의 단계로 돌아가는 이차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래적인 성격 경향에 의해서 자신이 남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믿는 환자는 지적인 합리화 과정을 매개로 해서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로 인해서 과대 망상이 나타난다. 피해망상에서 박해하는 사람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동성이다. 박해하는 사람은 환자가 정상이었을 때 제일 사랑했던 동성의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편집증의 특징은 환자가 동성애적인 소망 현상을 쫓아버리기 위해 피해 망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⁴⁵⁾

프로이트는 인간 영혼의 심층을 탐험하고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고 억압하는 개인적·사회적 기제를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 틀과 방법 및 도구로 정신분석학을 구축했다. 정신분석학은 오늘날 인간의 정신적 세계와 삶, 그리고 문화를 좀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언뜻 비정상적이거나 또는 비합리적으로 보여서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⁴⁶⁾ 바로 여기에 그의 정신분석학이 지니는 이론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강의』, 열린책들, 2004, 568-569면.

45)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명희 옮김, 「편집증 환자 슈레버」, 『늑대 인간』, 열린책들, 2004, 166면.

46) 김덕영, 『프로이트, 영혼의 해방을 위하여』, 인물과 사상사, 2009, 245면.

2. 대상관계이론

프로이트는 정신역동이론의 대부이면서 비록 그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대상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이다. 프로이트는 세 편의 논문⁴⁷⁾에서 사람이 주변 사람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방식을 탐색했다. 프로이트의 욕동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도출된 ‘대상관계’는 한 개인이 외적인 실체의 타자들과 내적인 상상적 타자들과 이루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정신분석이론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작중 인물의 정신분석을 인물의 내·외적 세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관계이론은 작중인물 분석방법으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일 것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중심 단계를 차지하는 것은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남자 아이에게 거세 불안을, 여자 아이에게는 남근 선망을 창조한다. 아버지는 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정상적인 이성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주도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반면 대상관계이론은 아이의 심리구조의 발달 세력으로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춘다.

대상관계이론은 어머니가 아이의 초기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고가 분석하고

47) 「애도와 멜랑콜리아」에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들 내면에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지를 묘사했다. 「집단심리학과 자아의 분석」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측면을 지도자에게 투사하고 그런 다음 지도자의 그 부분과 재동일시 하는지를 기술했다. 「금지와 증상과 불안」에서 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근접했다. 그레고리 해밀턴, 김진숙 외 옮김, 「좀 더 넓은 맥락」,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자기와 타자』, 학지사, 2007, 406-407면 참조.

있는 작중 인물들 또한 과거 회상 장면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삽화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정신분석의 분과인 대상관계이론을 수용하는 것은 작중 인물의 병리적 증상과 원인 탐색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이론을 세운 후, 본능적 욕동구조 모델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파⁴⁸⁾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 중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과 정신의 구조들이 인간 상호 작용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인간존재에 대한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대상관계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욕동 구조 모델에서 관계구조 모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클라인은 아동과 성인의 정신적 삶이 외부세계와 내적인 상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자기와 타자의 복잡한 관계들로 채워진다고 생각했다. 유아가 지각하는 대상은 외부세계의 현실대상들과는 무관하며 선형적으로 대상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대상은 욕동에 의해 환상적으로 창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형적·환상적 대상 이미지는 외부세계의 대상들과 접촉함에 따라 현실적인 요소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⁴⁹⁾

부친살해의 숙명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출발점이라면,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트적 아버지의 위치에 어머니를 세운다.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한 프로이트와 달리 클라인은 더 이른 유아기에 이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클라인에게 있어 최초

48) 융과 아들러가 성욕이론에 대한 이견으로 1911년, 1913년에 이탈되어 나왔으며, 1920년대에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기술을 수정한 랑크와 페렌찌의 이론들이 나왔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신 프로이트 학파'라고 불리워지던 프롬, 설리반, 호니의 정교한 이론의 근원지도 바로 이곳이다. 그 후 '프로이트 학파'는 세 갈래로 분리되었다. 그것은 정통 프로이트 학파, 멜라니 클라인의 추종자들, 미국의 자아심리학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제이 그린버그 & 스테판 밋첵, 이재훈 옮김, 「서론」,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18면.

49) 제이 그린버그 & 스테판 밋첵, 이재훈 옮김, 앞의 책, 215-217면 참조.

의 대상은 어머니이며 남녀 모두 어머니와의 동일화가 일어난다. 어머니라는 최초 대상에 대한 배타적 애착과 사랑과 증오의 갈등 구조는 이후에 아버지에게로 전이된다. 프로이트는 거세라는 시련과 아버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주체의 심리적 삶의 모습을 전개시켰다. 반면 멜라니 클라인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에게는 빠져 있는 어머니의 기능으로 주체의 심리적 삶을 보장하고 있다.⁵⁰⁾

마가렛 말러는 현실관계의 인간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며, 프로이트의 욕동모델에 발달의 새로운 차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말러는 성공적인 발달의 척도는, 아동이 공생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타자의 세계에서 안정되고 개별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러는 아동과 어머니 사이의 공생적 융합과 그 융합으로부터 발달과 퇴행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아가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말러의 공생개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후 초기 아동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평가 받고 있다.⁵¹⁾

말러의 업적은 공생과 분리개별화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오이디푸스 이전 시기의 환경과 대인관계 경험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론 제시는 하트만의 자아심리학과 컨버그, 코헷 등 현대 이론가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0) 줄리아 크리스테바, 박선영 옮김,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아난케, 2006, 23-52면 참조.

51) 제이 그린버그 & 스테판 밋첵, 이재훈 옮김, 앞의 책, 426-440면 참조.

Ⅲ. 병리적 원인과 징후의 양상

1. 내적 갈등과 신경증

신경증은 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생겨난 갈등의 결과로 신경증은 환자를 현실의 삶 밖으로 몰아내는, 현실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프로이트는 신경증이 정신 내부의 억압된 무의식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신경증이 기질적으로 강한 이드와 비대한 초자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덜 발달된 자아로 인한 정신 내부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함을 주지하였다.⁵²⁾

분석 대상이 되는 작중 인물들은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자아 분열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신경증에 이르게 된다. 신경증은 히스테리,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며, 급기야 자살에 이르게도 한다.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그러한 욕망을 억압하는 저항과의 갈등으로 생기는 병리적 증상과 원인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가. 탈향과 히스테리-「귀향 연습」

「귀향 연습」의 지섭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학성과 이로 인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한다. 지섭은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생하지만, 고향에 가면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귀향한다. 친구 기태의 과수원에서 정 선생과 기태의 조카인 훈과 기거하

52) 이창재, 앞의 책, 293면.

면서 자신의 병원(病原)이 어디에 있는지, 고향이 무엇인지에 고민한다. 지섭은 자신의 병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지섭은 증세를 다스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고향을 떠나 삶의 터전인 서울로 되돌아간다.

「귀향연습」⁵³⁾의 주인공 남지섭은 K시에 있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고향 마을을 떠난 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병을 앓았다. 서두에서 지섭은 자신이 고향 마을을 떠난 후 온갖 질병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병원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의 친구나 학교 선생님이 그의 배앓이에 대해 께배라고 놀려대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미 고통스런 배앓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나는 잡부금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무척도 많았었다. 어머니는 잡부금만 달라면 야단이었고, 잡부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학교에선 선생님이 야단을 쳤다. 벌을 서는 날도 있었고 잡부금을 가지러 10리가 넘는 산길을 걸어 집까지 되돌아오게 되는 수도 있었다. 잡부금이 밀리면 아예 학교가 가기 싫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골목 밖까지 나왔다가도 곧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일쑤였다.

(……)

언제부터나 그 배앓이 증세는 저 혼자서도 곧잘 기동이 시작되곤 했다. 잡부금이 밀려 있거나, 학교가 가기 싫으면, 굳이 배를 앓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슬슬 증세가 시작됐다. 잡부금이나 학교가기가 싫은 때문만도 아니었다. 이젠 어떤 일이나, 그런 식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을 맞닥뜨리면 영락없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⁵⁴⁾

53) 권택영은 라캉의 분석담론을 적용하여 증상을 통해 이청준의 작품이 어떤 시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지 밝히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귀향연습」의 인물은 자신의 증상이 삶의 필수적 조건임을 깨닫고 사회 속으로 귀환하는 즉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인물이라고 분석하였다. 권택영, 「증상으로 읽는 이청준 소설」,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제4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3. 295-297면 참조.

뚜렷한 신체적 이상 없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배앓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신체화라고 한다. 신체화⁵⁵⁾가 지속되는 원인은 환자 역할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 신체화를 촉진시키는 가정 분위기, 신체화를 조장하는 문화들 들 수 있다.⁵⁶⁾ 지섭의 신체화 원인은 우선 가정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지 섭의 엄마는 지섭이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하면 바로 학교를 쉴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것은 지섭의 아버지가 일제 때 징병으로 끌려간 후, 해방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아버지 부재의 상 황에서 아들은 가장과 진배없다. 지섭의 어머니는 지섭을 남편과 동일시하 고 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알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자 녀들도 감정 표현 불능증이 신체화로 표현된다. 지섭의 어머니는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노랫소리 같기도 한 슬픈 가락을 웅얼 거렸다. 지섭의 어머니는 청상의 삶을 혼자만의 가락으로 풀어내며 한을 삭이는 여성이다. 그녀는 지섭과 놀아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가 아니다.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지섭 또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 스를 다스릴 수 있는 감정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신체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섭의 배앓이는 그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수시로 나타나서 지섭 을 괴롭힌다. 지섭은 질병의 원인이 고향을 떠나서 생긴 증상이라고 자가

54) 이청준, 「귀향 연습」, 『눈길』, 열림원, 2008, 159면-162면.

55) 보상금을 더 많이 파기 위해 아픈 척 하는 사고 택시 기사와 경우처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목적이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피병의 가능성이 높다. 피병에는 의 도적인 거짓말이 개입되고 겉으로도 피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신체화는 정말로 자신이 아프다고 느낀다. 또 몸이 아파서 얻는 이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심리적 목적이나 개인적인 이득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신체화가 나타난다. 신현균, 「신체화는 왜 생기는가」, 『신체형 장애-아무 이유도 없 이 몸이 아프다면』, 학지사, 2000, 104면.

56) 신현균, 위의 책, 102-112면 참조.

진단을 내린다. 고향에 오면 증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지섭의 기대를 배반이라도 하듯이 고향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보는 순간, 배앓이가 시작된다. 이것은 배앓이의 원인이 탈향과 무관함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다.

히스테리⁵⁷⁾의 정신 병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외부적 사건이 큰 작용을 한다. 특히 외상성 히스테리의 경우 분명히 특정 사건이 증세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스테리 유발사건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사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들이 심한 증세를 촉발시키고 증세를 수년간 지속시키는 것이다. 지섭의 고향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산비탈 밭머리에서 어머니가 밭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낸 것이다. 바다와 산과 밭머리의 지게터, 온종일 김을 매던 어머니와 산속의 노랫가락에 관한 것 이외에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초등학교 납부금사건 이전의 기억이 단절된 것은 지섭의 유아기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기억의 공백과 변형을 만드는 실체는 주체의 심리 곧 무의식이다. 지섭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의식의 밑바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섭의 병의 시작은 어린 적 고향에서 납부금을 내지 못해, 선생님께서 부터 독촉을 받을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조퇴를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잡부금을 가지고 오라고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선생님과 돈이 없어 잡부금을 주지 못하는 엄마 사이에서 어린 지섭은 상처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섭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핑계가 필요한 데 그것이 배앓이었다. 그는 배앓이가 처음 시작된 지섭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히스테리 현상의 결정인자들이 되어버린 기억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놀랄 만큼 생생하고 완전하게, 그

57) 히스테리의 증상들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신경통, 신경마비, 히스테리 발작, 간질성 경련, 간질 소발작과 틱의 성질을 띠는 장애들, 만성구토와 거식증, 여러 형태의 시각 장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환영 등이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미리혜 옮김, 「히스테리 현상의 심리기제에 대하여: 예비적 보고서」,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2004, 14면.

리고 강렬한 감정 색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존재한다. 이 관념들은 억압되지 않은 연상 때의 재생을 통해 생생하고 강한 감정을 유지한 채로 지속된다.⁵⁸⁾

지섭은 잡부금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궤병을 부리기 시작할 때, 정말로 배가 아팠으면 소망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말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잡부금 때문에 시작된 배앓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맞닥뜨리면 영락없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급기야 지섭은 배앓이 때문에 거꾸로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궤병은 진짜 배앓이로 변하고, 이후 도시에 적응하면서 민망하거나 난감할 때면 각종 잔병에 시달린다.

지섭은 자신의 모든 질병과 증세들은 고향을 떠나가 얻는 것들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고향을 되찾게 되면, 모든 증세들은 씻은 듯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가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고향이 실은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인식 앞에서 허물어진다. 이청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향 탐색의 모티프는 현실 세계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고립된 자아인 주체가 자기 동일성의 회복을 위해 시도된다. 고향과 관련된 최초의 기억은 밭 매는 어미에 대한 것이다.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다섯 마지기 여름 밭갈이로 보냈다. 아침만 되면 어머니는 김매기를 나가면서 밭머리로 나를 데려다놓았다. 밭머리에는 푸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쉬어가는 지게 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옛날부터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 인적에 쫓겨 윤이 돌을 만큼 반들거리는 무덤가의 잔디밭 지게 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냈다. (……) 그리고 그 시기엔 어머니가 나를 업어다 쇠고빼처럼 허리에 띠를 감아 매어놓곤 했었다. 걸핏하면 아무데나 기어가 흙덩이를 집어먹고 나

58)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미리혜 옮김, 앞의 책, 21-23면 참조.

무 가시 같은 데에 얼굴을 자주 활켜어댔기 때문이라고. 어떤 때 사람들이 지게 터를 지나가다보면 나는 온몸에 오줌과 똥을 짓이겨 바른 채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 울음을 울다울다 제풀에 지쳐 더운 띄약벌 아래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고. 그러나 나는 물론 그런 일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내가 기억을 남기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내 허리에서 고삐가 풀린 뒤였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그런대로 내게 제법 행복스런 기억이 남아 있었다.⁵⁹⁾

말리(M.Mahler)는 10-16개월 사이의 유아기를 연습하위단계라고 불렀다.⁶⁰⁾ 이 시기의 유아는 점차 발달하는 운동기능으로 세상의 모든 측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기는 기어서 어머니에게서 떨어질 수 있게 되지만, 눈으로는 항상 어머니를 되돌아보며 점검한다. 어머니가 지섭을 업어다 허리에 쇠고배처럼 띠를 감아 매어 놓곤 한 것으로 보아, 이때의 지섭은 걸음마를 막 떼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어머니의 웅얼거리는 노랫소리가 가까워져 오면 자신이 보살펴지고,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다. 반면 멀어져가는 소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머니가 즉각 반응해줄 수 없다는 불안, 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한다.

지섭의 어머니는 죽은 남편, 가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모든 원망이 외아들인 지섭에게 향하고 결국 아이를 묶어두는 일종의 가학적인 행위로 표출한다. 어린 지섭은 어머니의 가학성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언어로 표현한다. 지섭은 어머니의 불충분한 사랑에 대한 항거로 자신의 몸에 오줌과 똥을 짓이겨 바른 것이다. 대변보기는 폭발시키거나 독살시키고자 하는 악의에 찬 신체언어일 수 있다.⁶¹⁾

지섭은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 울다 제풀에 지쳐

59) 이청준, 앞의 책, 184-185면.

60) 그레고리 해밀턴, 김진숙 외 옮김, 앞의 책, 70-70면 참조.

61) 제이 그린버그 & 스테판 밋첵, 이재훈 옮김, 앞의 책, 230-231면 참조.

피약별 아래 잠들곤 하였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다. 아이들은 발달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 타내려고 하는 욕구와 이상화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어머니나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그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분노하게 되고, 그 대상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분노를 자기애적 분노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 구조를 쉽게 분열되고 해체되는 취약한 구조로 만든다.⁶²⁾

유아기의 안정애착 경험은 이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사회적 유능감 형성의 기초가 된다.⁶³⁾ 그러나 어머니의 가학성과 불충분한 욕구 만족으로 인해 지섭은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자존심의 결핍으로 이어져 항상 자신을 불충분하게 느끼고, 주어진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섭에게 배앓이 증상 외에 또 하나의 특이한 버릇이 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의 습관인데 언제나 이야기 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드는 버릇이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 버릇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혼자 지내는 지섭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은 라디오이다. 지섭은 어린 시절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죽으면 어쩌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등의 공상을 하였다. 공상이 늘다보면 두려움과 갑갑증이 끝없이 늘어갔다. 이야기를 들어야만 잠이 드는 버릇의 근원은 불안 심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62) 최영배·조두영, 「이청준 연작소설 ‘남도사람’에 대한 정신역동적 고찰(考察)」, 『신경정신의학』 제 35권, 6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6, 1410면.

63) 심리학자 보울비(bowlby)는 대인관계의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애착 관계에 주목하였다. 대인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애착관계는 아이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민감한 양육자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된다. 보울비는 애착 관계를 안정애착, 불안정-회피애착, 불안정-저항애착, 불안정-혼돈애착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유숙 외, 「대인관계」, 『자기실현과 정신 건강』, 학지사, 2007, 116-117참조.

최초의 기억에서 웅얼거리는 어머니의 슬픈 노랫가락을 듣고서야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지섭에게, 성장한 후에도 어머니의 이야기 소리는 어머니가 존재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유복자로 태어난 지섭에게 아버지 부재는 큰 공포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불안심리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미조자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지섭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다.

지섭은 훈이에게 주인없는 무덤가에서 홀로 보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것은 참으로 행복스런 추억’이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지섭의 태도는 그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음의 역설이다. 지섭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충분한 보호와 만족스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어린 시절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피병으로 시작된 지섭의 배앓이는 가장 부재의 집안 분위기와 지섭의 불안심리 때문에 히스테리 증상으로 가속화된다. 지섭이 이야기소리를 들어야만 잠들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 불안 심리와 어머니마저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생긴 증상이다. 객지 생활에서 부딪히는 온갖 정신적·심리적 갈등은 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고질적인 배앓이라는 히스테리 증상을 가져온다. 고향에 돌아가면 자신의 병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에 고향에 돌아오나, 어머니로 표상되는 고향이 어린 시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억압기제를 깨닫게 된다. 아직 고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준비가 덜 된 지섭은 귀향 연습만 한 채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

나. 자살과 우울증 - 「가면의 꿈」

「가면의 꿈」은 어릴 적부터 천재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성장한 명식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이다.

명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검정시험을 거쳐 일류 중학에 합격할 만큼 어렸을 적부터 소문난 ‘천재’였다. S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으며, 주변의 기대를 저 버리지 않고 사범고시에는 최연소자로 합격하였다. 그는 판사로서 ‘신념과 활기에 충만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가정적·사회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명식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벽이 있다. 그것은 변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는 것이다. 그의 서랍 안에는 언제부터 모아들이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가발과 콧수염과 테가 다른 안경들이 쭉서 박혀 있었다. 그의 변장도구들을 살펴보면, 명식이 되고자 한 사람은 ‘후줄근한’ 모습의 인물이다.

가면을 쓰는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았을 때의 자기 자신을 떠나려는 사람이다. 자신이 타인의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건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증여하건, 자기동일화 욕망에 지배되는 연극기 속에서 타인과 자기의 거리는 순간적으로 소멸된다.⁶⁴⁾ 명식은 변장을 하고 타인의 삶을 흉내낸다. 명식이 변장을 하고 밤거리에 나서는 순간 명식은 가면 속에서 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명식은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개인적 재능, 가정의 행복, 사회적 명예를 거부하고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아래 지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과연 밤 외출이 늘고 있었다. 비로소 관심이 가기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딱할 정도로 피곤해져 있곤 했다. 대문을 들어서면 그의 표정은 날개 꺾인 새처럼 늘 힘이 없었고 죄지은 아이처럼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말수도 훨씬 적어진 듯했고 영문 모를 신경질 같은 것이 돌아 있을 적도 있었다. 피곤한 귀가의 연속이었다.

64) 정과리, 「용서, 그 타인됨의 세계」,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268면.
(원출처: 『겨울 광장』 해설, 1987)

(.....)

그의 변장은 그런 밤 외출 때만도 아닌 듯했다. 외출이 없는 날도 그는 저녁을 끝내자마자 곧장 2층으로 올라가 혼자 서재 속에 깊이 파묻혀버리기 일쑤였다. 혼자 좀 조용히 쉬고 싶다는 게 그때마다의 그의 핑계였다.⁶⁵⁾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모습은 날개 꺾인 새처럼 힘이 없고 아이처럼 의기소침해 있다. 위와 같은 명식의 태도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⁶⁶⁾이다. 우울증의 발생은 의식에서 떠난 무의식의 대상 상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울증 환자는 자아가 쓸모 없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비난한다. 우울증의 경우 자아가 빈곤해지는 것은, 그가 진실을 바라보는 더 예리한 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명식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지배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임무를 맡은 판사이다. 그러나 명식은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잣대와 판사라는 법 체계 안에서의 잣대가 동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데에 대한 중압감과 조직내의 갈등 또한, 그의 내적 갈등을 부추킨다. 지나치게 엄격한 초자아의 감시 때문에 명식의 자아는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은 우울증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아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해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행동양식, 일종의 기능 콤플렉스를 융은 페르소나라고 칭했다. 페르소나는 사회집단이 개인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갈 때 생긴다.⁶⁸⁾ 명식

65) 이청준, 「가면의 꿈」, 『가면의 꿈』, 열림원, 2002, 192면.

66) 우울증 환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인상이 상당한 진단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체로 지쳐 있고 외부에 관심이 없어 보이며 슬픈 표정을 짓고 행동도 저하되어 있으며 양미간을 찡그리고 있는 등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정윤 외, 앞의 책, 250면.

67)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앞의 책, 246-248면 참조.

은 어릴 적부터 천재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시선을 온 몸으로 느끼며 성장하였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지나친 기대감은 명식으로 하여금 어린아이다운 본능을 억압하도록 종용하였으며, 명식은 스스로를 사회집단의 요구 속에 꿰맞추어 온 것이다.

명식의 가면으로의 도피는 사회적인 부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소심한 그의 성격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맨 얼굴로 현실을 마주하기에 명식의 자아는 지나치게 유약했고,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가면을 쓰고 주체와 객체 사이의 전도된 상황을 연출하면서, 가면의 얼굴은 자유로운 의지를 방해하는 세계에 대해 복수와 반항을 시도한다. 명식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저항하여 자신을 자학적으로 변화시켰다.

갈등을 일으키는 긴장 속에서 질환이 생겨나는가의 여부는 자아가 외부 세계에 대항하는 본연의 임무를 지켜 이드를 침묵시키려고 하느냐, 또는 이드에 굴복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분리되느냐에 달려있다.⁶⁹⁾ 명식은 자유로운 세계로 탈출을 꿈꾸는 이드와 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자아와의 갈등 속에 있다. 명식은 자유로운 의지를 방해하는 사회적 자아를 버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밤 외출을 즐기는 고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성공적인 삶을 가장한 가면의 얼굴과 심혼을 상실한 자아의 분열로 주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세계에 순응하는 척해 보이는 개인의 의지를 외면적 자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은 가면의 얼굴이다.⁷⁰⁾ 명식은 ‘가면의 뒤에서 자신의 상징적 주체를 무효화함으로써, 휴식을 얻고 그것의 ‘아무것도 아님’의 속에서 자기 존재의 진실을 꿈꾸며, 위안을 얻는 것’⁷¹⁾이다. 가면의 외출 후 명식이

68) 이부영, 「분석심리학에서 본 자아와 자기」,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4, 44면.

69)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옮김, 앞의 책, 192면.

70) 오생근, 「간혀 있는 자의 시선」,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132면.

71) 오윤정, 「라캉적 분열 주체와 가면의 논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77면.

퇴근 때의 피곤기와 짜증스런 신경질을 말끔히 씻고 돌아오는 것은 이드와 자아의 팽팽한 갈등 속에서 쾌락 원칙을 추구하는 이드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한껏 다감해지고 한껏 활력에 찬 잠자리’로 연결된다.

지연이 본 명식의 가발 쓴 모습은 ‘이상스럽게 측은한 안정감이 느껴졌고 그녀로서도, 익숙한 남편의 얼굴’로 인식되었다. 이제 지연은 명식의 맨 얼굴이 가면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가면의 생활에 익숙해지자 명식은 이제 가면 뒤에서도 다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주체가 언제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할 때, 가면 뒤에 있는 주체는 곧 탈존하는 실제의 주체가 된다. 역설적인 것은 주체 자신에게도 이 탈존자는 낯설다는 것이다.⁷²⁾ 가면을 쓴 명식은 현실에서도 가면 뒤에서도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된다.

밤 외출도 차츰 횟수가 줄어 들어갔다. 그럴수록 명식의 맨 얼굴은 점점 더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져 갔는데, 그는 그 가면과 같은 뻔뻔스런 피곤기를 얼굴 위에 가득 뒤집어쓰고 대문을 들어섰다가도, 저녁이 끝난 뒤의 그 밤 외출의 유혹만은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기미였다.

어쩌다 밤 외출이 있는 날 밤도 명식은 옛날처럼 당당하지가 못했다. 그런 밤 명식의 행동은 이상스럽게 자학적이었고, 지연에게 터무니없이 자주 미안해하는 가하면, 어떤 때는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눈물을 절끔거리고 들 때까지 있었다.⁷³⁾

자기 자신을 감춘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배반된 욕망이므로, 가면의 수단은 일시적인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⁷⁴⁾ 이제 명식은 가면의

72) 오윤정, 앞의 논문, 33면.

73) 이청준, 앞의 책, 197면.

74) 오생근, 「간혀 있는 자의 시선」,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135면.

속임수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아는 이드의 강력한 본능적 충동을 억압의 매커니즘으로 본능 충동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러면 억압된 이드는 자아가 힘을 미치지 못하는 경로를 따라 증상을 만들어낸다. 신경증이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의 전형적인 질환이 우울증이다.⁷⁵⁾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초자아(양심)가 자아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 우울증 환자는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다루지만, 우울증 발작이 일어나면 초자아는 극히 엄격해지고 급기야는 누군가가 자신을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를 갖는다. 명식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갑자기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한다는 것은, 그가 우울증임을 증명해 보이는 증상이다.

모처럼 만의 외출을 다녀온 다음날 아침 명식은 ‘하얀 와이셔츠 바람인 채 머리와 얼굴에선 그 기다란 가발과 콧수염을 떼지 않은 채’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⁷⁶⁾ 우울증에서 죽음의 공포는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느껴서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명식의 죽음은, 분명한 자기 공격의 동기를 지닌 준자살적 행위⁷⁷⁾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하늘로 치솟아 오르려다 거꾸로 추락을 하고 만 것 같은,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은유이다. 자살기도가 충동행동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의 심판이라

75)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옮김, 앞의 책, 193면.

76) 서경원은 명식의 죽음에 대해 속인이 과거의 더러움을 씻고 새 상황으로 들어가듯, 그는 서재에서 현실적 갈등을 눈물로 씻고, 달빛에 몸을 씻은 후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안주한다고 분석하였다. 서경원, 「죽음의 Initiation적 樣相-李清俊 小說을 中心으로」, 『어문교육논집』 5, 부산대학교국어교육과, 81.7. 198면.

77) 이러한 자살자의 특징은 죽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지니고 자신이 확실하게 제때에 발견되게 준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또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자살방법을 사용한다. 토마스 브로니쉬, 이재원 옮김, 「자살이란 무엇인가」, 『자살』, 이끌리오, 2002, 22면.

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면적 태도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명식은 천성적으로 소심한 성격에다가 천재라고 추켜세우는 주변의 시선 속에 주체성을 확립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초자아와 내면적 자아와의 이분법적 대립에서 소심한 성격과 억압적인 환경 때문에 자아는 실 곳을 찾지 못한다. 명식은 주체와 객체의 전도된 상황을 연출하면서, 현실의 강압적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애쓴다. 그러나 가면의 세계에서조차 타자나 세계와의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한다. 자기동일화 욕망이 지배되는 연극기 속에서 타인과 자기의 거리는 순간적으로 소멸되고, 주체를 확립하지 못한 어른 명식은 어린 아이가 눈송이를 맞이하듯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추락한다.

다. 죽음 충동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석화촌」

「석화촌」⁷⁸⁾은 고기잡이 나간 별네 아버지가 바다의 원귀가 된 후 어미마저 스스로 물에 빠져 죽게 되자, 별네도 그녀가 사랑하는 거무와 함께 바다로 나가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이다.

산봉우리 아래 오십여 채의 초가가 모여 있는 석화촌은 대부분의 사람들

78) 「석화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석화촌」은 민간 속신을 창작 발상법으로 적극 인정한다는 그 점 때문에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작품이다. 그러나 「석화촌」만큼 사랑을 완성하는 죽음의 현상학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소설의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양진오, 「섬, 바다, 강 그리고 인간의 운명」, 『이어도』, 361면.

② 「석화촌」은 하나의 존재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낙원에 재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바다에의 침몰을 거쳐 재생한다는 것을, 바다에의 여행(죽음)을 경험하여 속의 껍질을 벗고 하나의 성스러운 힘을 얻어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원, 앞의 논문, 204-205면 참조.

이 갯벌에서 석화를 수확하여 살아가는 어촌이다. 석화촌은 하나의 폐쇄된 집단이다. 집단은 환상을 요구하고, 환상 없이는 견디지 못한다. 집단은 항상 현실적인 것보다 비현실적인 것에 우선권을 주고, 진실만이 아니라 허위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⁷⁹⁾ 마을 사람들은 물귀신이 된 영혼은 또 다른 물귀신을 만들어놓고야 저승으로 간다고 믿는다. 이러한 미신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라도 하듯이 매년 한 사람씩 물에 빠져 죽는 변고로 이어졌다. 그들은 집단적 속설을 철저히 신봉하고, 이를 스스로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별네 어미의 죽음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신봉의 결과이며, 집단이 갖는 마술적 힘에 굴복한 결과이다.

정 씨가 물에 뛰어든 것은 물귀신은 다른 물귀신을 만들어놓지 않고는 영영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는 섬의 전설 때문이다. 도회지에서 온 강 씨의 큰아들은 별네가 마을의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며, 그런 몫쓸 병을 고쳐줘야겠다고 한다. 외부 세계에서 온 강 씨의 큰아들은 집단적 민간속신을 부정하며, 집단적 환상에 갇힌 별네에게 휘파람 소리로 무언의 경고를 한다. 별네는 자신이 거무를 저주하는 건 아니라고 믿었다. 그러나 별네는 ‘그가 귀수처럼 두려웠다’고 고백함으로써, 그녀가 이미 집단 속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별네가 죽고자 한 것은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집단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 씨의 죽음은 안 노인의 혼령이 물귀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제의적 죽음이었다. 안 씨 노인의 죽음을 뒤따르는 어미의 희생적 죽음에 대해 별네는 양가성을 느끼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를 연이어 잃은 별네는 허탈 상태에 빠진다. 별네의 희망, 소망, 기쁨은 부모의 죽음으로 바다 속 깊이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자아의 일부

79)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86면.

였지만, 그들의 죽음은 한편으로 그를 기쁘게 한다.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양가 감정의 법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⁸⁰⁾ 아버지의 죽음 뒤에 발생한 어미의 죽음에 별네는 슬픔과 선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아버지와 어미의 연이은 죽음 후, 별네는 차가운 바닷물,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다의 모든 것에서 물 속을 헤매고 있는 어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별네는 마을사람들의 따돌림과 저주를 곳곳이 견디며, 어미의 혼령을 구해내고픈 소망 충동을 간직하고 있다. 별네는 거무에 대한 사랑으로 어미의 혼령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별네는 사흘 전 거무가 바다에서 돌아 왔을 때 미친 듯이 반가워하였다. 석화밭에 돌⁸¹⁾을 집어 넣어야하는 데, 돌을 옮겨 놓을 방도를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돌을 심는 빨판은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지점이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뱃놈은 죽어서나 육지에 묻힐 수 있으며, 그것도 재수 없으면 물귀신이 되는 수도 있다. 죽어서나 겨우 육지에 묻힐 수 있는 그들이 빨판에 돌을 심는다. 새로운 생명 석화가 살 수 있는 돌을 심는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별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개펄에 돌을 심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꿈꾸는 유한한 존재의 무한에 대한 역설이다.

그녀에게는 이 석화밭을 일구는 일뿐 아니라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 버린 셈이었다. 중요한 것은 돌을 심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거무에게 눈치를 채이지 않고 밤까지 온전히 기다릴 수

80)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옮김,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2004, 60면.

81) 돌은 존재, 응집, 혹은 자아와의 조화로운 화해를 상징한다. 돌은 변화, 부패, 죽음의 법칙에 종속되는 생물들과 대립되는 세계를 암시한다. 이승훈(편),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38-139면.

있느냐가 문제였다. 밤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었다. 석화발도, 마을 사람들의 저주도, 거무의 조짐도, 그리고 망설임도……⁸²⁾

별네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다. 프로이트는 죽음 본능과 동일시하게 된 자아본능, 그리고 생명본능과 동일시하게 된 성적본능, 이 양자 사이를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그는 이들 사이의 이원론적 대극성은 생명본능과 죽음 본능사이에 두고 있다. 생명본능은 에로스적 본능으로 언제나 살아 있는 물질을 더 큰 단위로 뭉치게 하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의 본능으로서 이러한 생명 추구에 맞서면서 살아 있는 것을 비유기적 상태로 돌리려는 것이다.⁸³⁾ 별네가 거무와 성적합일을 이룬 다음날 죽음 의식을 실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합 후 완벽한 통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 증동 때문이다. 별네가 꿈꾸는 통합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이어 죽음을 맞이했듯이 죽음으로 완결하려는 것이다.

별네가 죽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 때문이다.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향해서 성적 리비도를 집중시키고, 아버지를 본보기로 삼고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소녀의 오이디푸스 관계는 남자와 약간 다르다. 어머니는 원래 소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대상 합일체의 일부였던 어머니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분화 과정을 통해 소녀는 자신이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으나, 어머니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온전한 애정을 얻기 위해 어머니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소녀는 어머니와 재동일시하는 해결책에 이른다.⁸⁴⁾

82) 이청준, 「석화촌」, 『이어도』, 열림원, 2008, 27면.

83)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옮김, 앞의 책, 2004, 144면.

84) 그레고리 해밀턴, 김진숙 외 옮김, 앞의 책, 167면.

거무는 안 노인에 의해 뱃사람으로 태어난다. 물귀신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거무(거미)라는 이름도 안 노인이 직접 지어준 것이다. 거무는 별네 아비에 의해 뱃사람이 되고, 뱃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뱃놈 딸인 별네와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상징적 교환의 조건, 다시 말해 문화의 조건이면서도 동시에 교환의 대상일 따름이지 교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남성 사이의 동성사회적 관계를 견고하게 해 주는 매개가 된다. 안 노인은 딸인 별네를 배제시키고 거무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정한다. 이것은 여성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제 사회의 횡포를 의미한다. 거무라는 이름은 불멸의 남성성을 상징하고, 별네는 생산으로서의 여성, 임신 출산이라는 몸의 자연적 기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별네가 죽음의 동반자로 거무를 선택한 것은 투사적 동일시⁸⁵⁾ 때문이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핵심 역동은 유도성이다.⁸⁶⁾ 즉 투사적 동일시는 한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하는 대인관계 행동 유형이다. 투사적 동일시는 투사에 동일시하고 역할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역할을 투사하는데 별네에게 가장 적합한 대상자는 거무이다. 아비와 어미가 죽은 후, 별네는 마을사람들의 집단적 따돌림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그녀에게 유일한 정붙이는 거무이다. 별네는 집단적 따돌림 때문에 생긴 소외감과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유일한 정붙이자 피붙이인 거무에게 투사적 동일시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핵심 역동은 유도성이다. 조정의 대상자는 투사를 하

85) 켄버그는 투사적 동일시가 견딜 수 없는 심리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 대상과의 실제적인 상호 작용을 대상에게 무의식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폴 홈즈(Paul Holmes), 송종용 옮김, 「심리적 방어기제」, 『현대정신분석과 심리극』, 백의, 1998, 212-224 참조.

86) 셸던 캐시던, 이영희 외 옮김, 「투사적 동일시」, 『대상관계치료』, 학지사, 2005, 105-107면 참조.

고 있는 사람이 부인한 측면을 동일시하도록 유도된다. 별네는 사흘 전 거무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반겼다. 그러나 거무가 타고 온 배는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운 거무 자신과 별네 두 사람의 슬픈 운명을 싣고 온 셈이다. 별네가 거무의 귀환을 그토록 반기는 것은 거무를 통해 자기의 소망 충동을 이루려고 한 것이 무의식 중에 표면화 된 것이다.

성적 투사적 동일시⁸⁷⁾는 성을 수단으로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대인간 역동이다. 성적 투사적 동일시가 작용하는 관계에서, 성애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성은 다른 모든 것을 가린다. 그들은 성적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증하려는 것이다. 별네의 대답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거무는 어젯밤 돌을 실어다 던지고 난 빈 배에서 별네가 의심스러워하던 것을 확실히 해 주었다. 밤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둘은 배 안에서 첫 번째 성적 합일을 이루었다. 별네가 거무와의 죽음 의식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그녀가 거무의 여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던 거무가 드디어 별네가 조정한 대로 성적 합일을 통해 반응을 보인 것이다. 거무와 투사적 동일시를 확인 후, 새벽녘에 별네는 식칼을 가지고 배 밑을 쪼아 구멍을 내놓았다. 이러한 과정이 별네에게는 꿈속의 일만 같고, 무서운 악몽으로 기억된다. 별네는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욕동에 의하여 배에 구멍을 낸 것이다.

거무는 무심결에 자신의 운명을 말하고 있었다. 아니, 그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눈치채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그녀를 품려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가슴이 새삼 섬찟해 왔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거무에게로 달려가 매달리며 모

87) 투사적 동일시는 특징에 따라 의존성 투사적 동일시, 힘적 투사적 동일시, 성적 투사적 동일시, 환심을 사려는 투사적 동일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셀던 캐시딘, 이영희 외 옮김, 앞의 책, 129-142면 참조.

든 일을 실토해버리고 싶었다. 그러면 거무도 그녀를 다 용서해줄 것 같았다. 그녀가 거무에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품게 된 것은 거무의 속마음을 몰랐을 때였으며, 어젯밤 그가 자기 속을 확실히 해주었을 때부터는 제물에 무섭게 가슴을 떨어오지 않았던가.⁸⁸⁾

별네는 거무 몰래 죽음을 준비하면서 괴로워하였다. 그러나 어젯밤 거무와의 사랑을 통해 거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동반 죽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 사람은 투사대상자로 하여금 투사적 환상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투사대상자가 조정에 의해 유도된 감정들과 반응들에 반응하는 것이다.⁸⁹⁾ 별네가 죽음을 갈등하는 것은 아버와의 무의식적 근친상간적 욕망이 거무를 통해 완성된 후이다. 이 지점에서 별네는 거무를 아버와 분리된 존재로 인정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정신을 놓아버릴 뻔한 자신에 놀라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때 ‘수만개로 찢어진 어머니 정 씨의 아우성이 거기 섞여있었다.’ 거무와의 죽음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본능과 자아 사이에서 갈등한다. 자아와 본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게 되자 결국 불안 심리는 환청을 듣게 된다.

프로이트는 자살에 대해 첫째는 자기를 죽임과 동시에 자기가 동일화하고 있는 대상을 죽이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욕망은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⁹⁰⁾ 거무는 모두 떠나버린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별네는 살아있는 것과 또 그 다음의 모든 것이 무서웠으며 거무가 항상 함께 함께하기를 바랐

88) 이청준, 앞의 책, 41면.

89) 셀던 케시딘, 이영희 외 옮김, 앞의 책, 107면.

90)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명희 옮김, 앞의 책, 369면.

다. 둘이 함께하는 확신의 증표가 어젯밤 거무와 한 몸이 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녀 부모가 연이어 죽었듯이 그녀 또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죽고자 하는 죽음 충동을 느낀다.

거무는 별네가 뱃바닥에 구멍을 낸 것을 알고는 ‘무슨 생각에선지 뱃머리를 바다 가운데로 돌렸다’. 별네에서 시작한 죽음이 이제 거무의 완전한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거무도 별네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때 별네는 ‘그렇게 귀를 깊게 해 찾아도 들리지 않던 그 거무의 부르짖음이 들려 왔다.’ 죽음에 이르러 거무와 별네는 영혼의 합창 소리를 듣게 된다. 서럽고 괴롭고 처량한 울부짖음. 둘의 죽음은 사랑을 영원히 하나로 만들어 준다.

별네는 아버지가 물에 빠져 원귀가 되고, 어미가 그 뒤를 이어 물에 빠져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따돌림과 저주를 받고 있었다. 석화촌이라는 폐쇄된 집단은 별네에게 외로움과 서러움을 안겨주었다. 아버지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품고 있는 별네는 어미와 동일시를 한다. 어느 날 밤 거무와 한 몸이 된 후, 별네는 거무와 함께 죽을 준비를 한다. 그녀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미와의 동일시에 따른, 아버지를 따라 죽은 어미에 대한 선망과 사랑의 양가성 때문이다. 결국 별네의 죽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어미와의 동일시 때문이며, 거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투사적 동일시 때문이다.

라. 신경증 증상의 의미

「귀향 연습」은 어린시절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한 지섭이 내적 갈등 때문에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생하는 이야기이다. 지섭은 어머니의 가혹성

과 이로 인한 욕구 불만족으로 인해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한다. 영유아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욕구의 좌절로 인해, 지섭은 자기 구조를 쉽게 분열 해체시키는 성격이 형성된다.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수동적 성격과 아버지 부재의 가정 분위기는 그의 히스테리 증상을 가중시킨다. 지섭이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짊어져야 할 과제임을 깨닫고 서울살이로 되돌아간다는 결말을 통해, 이청준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머니와 동일시되는 고향이, 인간의 근원적인 공간이지만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면의 꿈」은 어릴 적부터 천재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기대를 한 몸 에 받고 성장한 명식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이다. 명식은 자유로운 세계로 탈출을 꿈꾸는 이드와 관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자아와의 갈등 속에 있다. 명식은 자유로운 의지를 방해하는 사회적 자아를 버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밤 외출을 즐기는 고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 명식은 낮 동안에는 사회·문화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것은 표면상의 성공일 뿐이고 차츰 억제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청준은 명식이 중년이 되어 잊어버린 내면 세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심혼의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다는 결말을 통해, 가면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영원한 가면의 꿈을 잉태하지만, 그것이 현실 저편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극성을 환기할 뿐임을 드러내고 있다.

「석화촌」은 석화촌이라는 섬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별네와 거무가 바다로 나가 동반 자살을 하는 이야기이다. 별네는 부모가 연이어 죽자, 그녀 또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죽고자 하는 죽음 충동을 느낀다. 별네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어머니와의 이차 동일시 때문이며, 그녀가 거무와 동반 자살한 것은 집단의 무리 중 유일하게 자신 곁에

남아 있는 대상에 대한 투사적 동일시 때문이다. 별네의 죽음은 긴장이 없는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죽음충동 때문이다.

소설을 통해 현실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듯한 양상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외면적 자아와 내부적으로 반란을 도모하는 내부적 자아의 분열된 양상은 히스테리, 우울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의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실원칙을 따르는 자아와 쾌락원칙을 따르는 이드의 갈등으로 인간은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며, 자아가 이드의 충동과 외부세계의 요구를 조절하는 데 실패할 경우 신경증은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다.

2. 억압 기제로서의 외부환경과 정신증

정신분석학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자가 내보이는 저항의 지각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은 본능 생활의 욕구들과 자신 안에서 그에 반대하여 제기되는 저항과의 갈등 때문에 병리적 증상이 발생한다. 증상은 사실상 어떤 병적인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적 증후는 억압된 것으로부터 생겨나고 자아와의 관계에서 억압된 것을 대신한다.

이청준 소설에서 억압은 사회와 개인,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전자가 후자에 가하는 억압으로 나타나는 데 그 양상은 폭력적이며 개인은 정신적 외상을 입고 고통 받는다.⁹¹⁾

91)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 -후기 이청준에 대하여」,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149면. (원출처: 『문학과사회』, 1990 여름)

가. 현실에서의 패배와 정신분열증- 「황홀한 실종」

윤일섭은 4 개월 전에 아내 손에 이끌려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를 찾아왔다. 아내는 남편의 어딘가 잘못되어 가는 게 분명하다며 입원을 간청한다. 윤일섭은 정신과병원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입원을 권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다. 윤일섭이 입원하는 것에 대해 저항이 없는 것은, 병원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공간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윤일섭의 안전한 공간에 대한 열망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정신과 손 박사의 진단 결과, 윤일섭은 신경증 이상의 특이한 의식 장애 현상이 나타났으며 조울증과 같은 악성신경증 질환이 계속되다가 마침내는 정신이상에게까지 이를 수 있는 초기분열증임이 드러났다.

윤일섭이 보이는 증상은 주변 사람을 속이고 꿀당을 먹이는 데에서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윤일섭은 연이은 대리 승진에 탈락한 후 이상하게 안정감을 잃고 동료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학성유희욕은 안전한 자리 보존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자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학성 유희욕 때문에 급기야 은행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성도착 증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에 와서 그인 제게 한 번도 절정감을 느끼게 해준 일이 없어요. 전에 비해 헛수는 그리 줄어든 편도 아닌데, 그인 제가 고비에 가까워진 기미만 보이면 언제나 거기서 갑자기 노력을 중단해 버리거든요…….”

남편은 번번이 그녀를 실망시켰고, 전에 없던 일이 연거푸 몇 차례씩 되풀이되다 보니 그녀는 비로소 남편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⁹²⁾

92) 이청준, 「황홀한 실종」, 『소문의 벽』, 열림원, 2008, 166-167면.

윤일섭이 아내가 절정에 이르기 전 몸을 빼버리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승진 누락은 일섭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오히려 아내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불안신경증은 성교 중단, 해소되지 못한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⁹³⁾ 즉 생성된 리비도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윤일섭의 불안신경증은 생성된 리비도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해소하지 못하고 성교중단,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 불안이 알려진 위험에 대한 불안이라면, 신경증적 불안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불안이다.⁹⁴⁾ 윤일섭은 안전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신경증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윤일섭은 누군가가 그를 은행의 쇠창살 밖으로 밀어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스스로에게 강요한다. 대리 승진에서 탈락한 그는 모든 사회적 분별 체계와 가치 평가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것들에 의해 그의 인생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정신 속에서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아이처럼 쇠창살 안에서 보호 받고 싶다는 퇴행 욕구가 작용한다. 현실적 성공을 통해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소망충동은, 연이은 대리 승진 탈락으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된다. 이러한 좌절은 어린 시절의 황홀한 실종의 기억과 결합되어 쇠창살 속에 갇히고 싶은 욕망으로 전치됨으로써 왜곡된 만족을 꾀하게 된 것이다.

윤일섭에게 나타난 또 다른 증상은 자신의 실종을 마련해 놓고 혼자 즐

93)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옮김, 앞의 책, 48면

94) _____, _____, 앞의 책, 297면.

기는 버릇이었다. 공장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워 놓고 그걸 다시 찾아내려고 고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 산길을 절반쯤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비바람이 조금씩 그치기 시작하더군요. 빗줄기는 듣기 좋을 만큼 포근한 소리로 풀밭을 두들겨대고 산골짜기엔 안개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산길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흰색 들꽃들이 여기저기 비를 맞고 피어 있더군요. 난 그 꽃들을 꺾기 시작했어요. 길을 가는 것도 잊고 그 들꽃들을 꺾기 위해 물소리가 쿵쿵거리는 골짜기를 따라 들어갔어요. 주위에는 전혀 인적 같은 것이 없는데도 이상스럽게 무서운 생각이 들질 않더군요. 골짜기는 전에 들어본 일이 없는 곳인데도 전혀 낯이 선 것 같지 않았어요. 언젠가 전에 한번 와본 일이 있는 것같이 모든 게 익숙했어요. 골짜기를 깊이 들어갈수록 기분이 점점 더 아늑해져 왔어요. 전 한송이만 더, 한 송이만 더 하는 식으로 그 들꽃을 꺾고 꺾으며 끝없이 골짜기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만이었지요…….⁹⁵⁾

일섭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비오는 산길을 뚫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실종을 경험한다. 아이들이 갖는 최초의 상황 공포증은 암흑과 고독함에 직면했을 때 발생한다. 홀로 산길을 걸어가는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고 자기 도피를 시도한다. 기존의 방어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부에서 퇴행욕구가 작동한다.⁹⁶⁾ 그들은 유아기로 돌아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한다. 골짜기는 어머니 또는 고향의 현존/부재의 상징이다. 홀로 비오는 산길을 걸어 가던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자 어머니의 자궁회귀를 시도한 것이다.

손 박사는 윤일섭과의 면담을 통해 일섭이 의식의 도착을 일으키는 것을

95) 이청준, 앞의 책, 212-213면.

96) 이창재, 앞의 책, 163면.

눈치 채다. 일섭은 대학 때 데모대에 참여한 자신이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또 은행은 철창문을 경계로 안쪽으로 밀려들어가고 싶어 기회를 노리는 쪽과 철창문 안쪽의 안전 지대에서 자리를 보존하기에 급급한 사람들과의 대치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 박사는 일섭의 주장을 뒤엎는 분석을 한다. 은행에 들어와 안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한 포진 속을 뛰쳐나가 쇠창살 너머 사람들과 한데 어울리고 싶었던 심정이며 대학 때도 교문 밖으로 나가고 싶은 자유에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윤일섭은 문밖으로 나섰을 때의 실패와 복수의 기억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으로 기억을 뒤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 손 박사는 쇠창살이 윤일섭의 도착을 불러일으키는 원흉이며, 의식 속 쇠창살이 그의 사고를 전도시키며 불안스럽게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신만만한 손 박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윤일섭의 병세에는 차도가 없이 오히려 더 이상스러운 증세가 나타난다. 윤일섭의 아내와 직장 동료는 손 박사를 방문하여 손 박사의 주장에 반박한다.

“과거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과연 현재의 달라진 의식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그는 정말로 그 문을 나가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 치더라도, 현재의 그는 이미 그 문을 나가기를 단념해 버린 터에, 아니 오히려 안으로 안으로 문 속 깊이로 자신을 숨겨 들어앉기를 원하고 있는 터에 말씀입니다. 무식한 소리로 우린 정말로 지금 그 문을 나가기보다 아늑하고 안정된 문 안의 안주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익혀 온 현실의 생활이라는 것일진대, 윤 형 역시도 이제 이미 과거의 소망 대신 스스로 그것을 뒤바꿔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윤 형이 그 은행을 쫓겨날까 두려워하

고 있는 것은 그 윤 형의 과거에서 비롯한 도착의 결과에서가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기 소망의 한 표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⁹⁷⁾

윤일섭 직장 동료의 증언대로 윤일섭은 대학 시절 경찰이 지키는 쇠창살을 뚫고 밖으로 나가 데모대 무리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하고 있는 대학 시절은 교문 밖으로 억울하게 내쫓긴 상태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길 열망하는 것이다. 기억의 전도가 일어난 것은 의식의 도착 증세이다. 그의 마음 속 쇠창살은 이때부터 그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경찰이 지키고 서 있던 교문은 은행원이 된 그에게 안과 밖의 경계를 짓는 쇠창살로 바뀐다. 은행의 쇠창살은 외부인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것을 방어해준다. 쇠창살은 억압과 해방, 구속과 자유, 생존경쟁의 괴로운 현실과 안주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자유 수호라는 젊은 시절 이상적 소망의 좌절과 성공을 바라는 현실적 소망의 좌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보상적 충동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⁸⁾ 그러나 이 쇠창살이 윤일섭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승진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쇠창살 안 피라미드 구조의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재물이 되어야 할 처지이다.

윤일섭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자신했던 손 박사는 윤일섭에게 창경원 구경을 권한다. 일섭은 손 박사의 권유대로 창경원에 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도한다. 그것은 쇠창살 안에서 제왕처럼 앉아 철책 바깥 사람들을 구경하는 수컷사자의 모습이었다.

97) 이청준, 앞의 책, 224면.

98) 이승준, 「이청준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 『이청준소설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220면.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피어던 셈이었다. 참으로 패썹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

손 박사의 음흉스런 계교가 발각된 이상 이제는 패썹한 의사 나리조차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자가 원하는 대로 병태가 제법 나아진 척해 보이면서 녀석과의 싸움을 결단코 승리로 이끌어 나갈 각오를 다짐했다. 그거야말로 건방진 우리 너머 축생도 이겨내고, 손 박사가 생각하는 쪽에선 결코 그의 증상이 나아질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럼으로써 위인의 곁에서 자기를 내쫓으려는 작자의 음모를 보기 좋게 격파해 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고급 전략이 아니겠는가.

사자놈을 이기는 것은 손 박사마저도 이기는 것이다…….99)

윤일섭이 사자를 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자우리 안에서 ‘사추리를 까발리고 흙바닥을 함부로 뒹굴어’ 대는 사자에게 알 수 없는 질투를 느낀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제왕처럼 구는 사자는 바로 손 박사의 모습이다. 일섭의 행동은 질투의 충동에 의한 무의식적 노력이다. 자신은 철책 밖에서 부유하고 있는데, 사자우리를 독점한 수컷사자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쇠창살 안에 있는 것이다. 윤일섭은 안전한 자신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데 대한 자괴감과 현실에서 얻은 분노와 낭패감을 사자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윤일섭이 동물원의 철책 안에 들어가는 결말은 철장의 안쪽을 보호와 안락으로 받아들이려는 일섭과 그의 동료의 진술과 일치한다. 쇠창살에 둘러싸인 사자우리는 그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는 곳으로 고립과 윤패를 동시에 가능케

99) 이청준, 앞의 책, 163면.

하는 공간이다.

초등학교 시절, 윤일섭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의 순간 자신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유폐시켜 두었다. 성인이 된 지금 어머니의 자궁 대신 사자 우리를 택한다. 윤일섭의 증상은 현대인의 조직 속에서의 불안 심리를 대변한다. 윤일섭이 산 시대는 데모를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쇠창살과 싸워야했다. 성인이 되어 은행원이 되었을 때 그는 조직 안에서 보호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원했으나, 은행은 승진 탈락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 쇠창살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자신을 가장 안전한 밑살로 유폐시킨 곳이 사자 우리이다. 이는 ‘자신의 쇠창살을 몰래 간직’한 채 일섭에게만 그것을 부수라고 부추기는 의사를 비롯한 모든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복수이자 현실에서는 끝내 이룰 수 없었던 소망충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인간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증의 원인이 단순한 심인론적인 내인성을 넘어서서 시대와 사회라는 외부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나. 가부장제 사회와 편집증-「겨울 광장」

「겨울 광장」은 읍내 버스광장에서 종적을 알 수 없는 딸아이를 찾고 있는 완행택의 이야기이다. 마흔 살 가량의 완행택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소망을 담아서 찾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가출한 망상¹⁰⁰⁾ 속 딸이다.

100) 망상은 왜곡된 인지구조를 통해서 매개된다. 잘못된 인지구조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물을 받아들이는 자기개인화, 맥락과는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선택적 추상화, 뚜렷한 증거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임의적인 추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정윤 외, 앞의 책, 270면. 완행택 망상 속 딸들은 완행택 삶의 서사 과정 중에 겪은 다양한 형태의 간절한 소망 충동을 표상하기 있기 때문에 완행택은 ‘자기개인화’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사 그 두 놈 가운데에 전날부터 딸년의 맘에 든 새끼가 있었으
께…… 그래 딸년은 그 새끼 땀시 제 몸을 내주고 말았던갑더라.”

“그럼 완행택 딸내민, 진즉부터 맘속에 두어 온 녀석을 먼저 배위로 올려
보냈겠군.”

검표원 녀석은 으레 그랬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완행택의 대꾸는 예상 밖이
었다.

“바보, 맘 맞는 사넬 배 위에 올려 났으면 머리맡엿 놈은 뭇하러 기다리게
놔뉘? 그년이 맘에 두어 온 건 머저리같이 머리맡 어둠 속에 쭈그리고 앉아
셈을 세면서 차렐 기다리고 있던 치란 말이다. 그년은 작잘 배에 올려 줄 욕
심으로 첫 번 녀석을 참으렸던갑더라…….”

완행택은 녀석이 지레 소동을 떨고 나서 버린 바람에 작자를 끝내 배 위에
올려 볼 수가 없었던 딸아이의 아쉬움을 자신의 일처럼 서운해하고 있었
다.¹⁰¹⁾

완행택의 딸아이는 흠모하던 사내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내를
배 위에 올렸다. 그녀의 목적은 그녀 머리맡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사내와 오בות하게 성애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완행택 의도와 달리
두 번째 사내는 그녀의 소망을 배반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만다. 흠
모하던 사내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원초적 욕망이 무산되자 완행택은 그
사내에게 집착하게 된다. 완행택 최초의 집착은 사랑하는 사내에 대한 연
정적인 집착이다. 집착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강박 신경증의 증
상들 속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첫사랑에 대한 구속과 적대감이라는 양가성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복
수를 완결시키고 싶은 욕망 충동으로 잠재되어 있다. 천돌이를 배 위에 오
르게 해 주고 싶은 소망은 결국 그에 대한 무의식적 복수에 대한 역설이

101) 이청준, 「겨울 광장」, 『소문의 벽』, 열림원, 2008, 309-310면.

다. 결국 딸아이로 표상되는 완행택의 불행의 근원은 그녀가 흠모하던 사내와의 성적 결합이 억압된 때문이다. 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사회적 관계의 내막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회적 감정의 뿌리가 관능적 성적

소문을 핑계로 의붓아버지는 결혼을 종용한다. 여성이 주체일 수 없는 사소망에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²⁾회에서 여성의 몸은 순결성으로 평가된다. 순결을 잃은 완행택은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사내와 결혼한다. 강압적인 결혼을 피해 집을 나갔던 완행택이 결국 결혼하는 것은 가부장제 바깥은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때문이다. 완행택은 남성이 주체가 되고 여성은 객체화되는 70년대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양이다.

딸아이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 영업택시를 모는 사내는 불규칙한 생활리듬과 잦은 외박으로 딸아이를 괴롭혔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박 후 무지스럽게 휘둘러대는 손찌검질이었다. 그들의 불행한 결혼이 딸아이의 첫사랑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내는 나중에는 시앓을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사내는 자신이 완행택을 성폭행한 것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독선적 인물이다. 완행택은 남편의 매질에 길들여지고 남편이 데려 온 시앓에게는 분노를 표출하는, 남자의 폭력적 권력을 일깨우는 거세된 여성이다.

완행택에게 어린 딸아이와 소박데기 딸아이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두 딸이다. 어린 딸아이와 소박데기 딸아이의 사연으로 단절·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은 완행택이 불행한 자신의 과거를 억압한 때문이다. 억압은 의식의 정신활동과 무의식의 정신 활동 사이에 확연한 간극이 생길 때 발생하는데 완행택은 원하지 않는 사내와의 불행한 결혼을 기억하기 싫은 것이다.

102)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명희 옮김, 앞의 책, 167면.

완행택은 딸아이를 데리고 개가를 했느냐는 광장 사람들의 물음에 완강하게 대들었다.

“아니 내가 뭇땀시 개가를 해와, 딸아일 또 불쌍하게 만들라고 뭇 땀시 내가 딸년한테까지 의붓애빌 보여?”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할미에게 완행택은 이번에도 그저 덮어놓고

“그런 거 난 몰라. 난 새서방 따로 얻어 본 일 없어. 난 그런 거 안 얻어. 천벌을 받을라고…… 딸년은 에미가 없는 년인께. 년한테 에미조차 없었으니 그리 돌봐 줄 사람이 없었제…….”¹⁰³⁾

어떤 판단에서 무엇인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밑바닥에서 이것은 ‘내가 억압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완행택은 새서방 얻는 것이 천벌 받을 일이라고 펄쩍 뛴다. 완행택이 재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혼한 어미에 대한 강한 비난을 의미한다. 완행택이 완강하게 의붓아비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그녀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암시한다. 의붓아비는 폭력적이었으며 완행택의 친어미와 완행택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투사¹⁰⁴⁾란 한 사람이 자기의 원하지 않는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투사는 외부대상을 향해 나타나지만 내적 대상에게 향하는 투사도 가능하다. 정신분열증에서 보이는 공격적 충동이 자기 특성 가운데 투사되는 유일한 측면은 아니다. 욕구와 자기상도 유사하게 외현화 될 수 있다. 즉 돌봄과 친밀감에 대한 투사도 가능하다.

완행택은 어미의 재혼에 대해 비난하면서 자신도 재혼을 한 것으로 내적 투사를 하고 있다. 완행택은 돌봐줄 어미조차 없는 가없는 딸에 대해 이야

103) 이청준, 앞의 책, 322면.

104) 그레고리 해밀턴, 김진숙 외 옮김, 앞의 책, 96-98면 참조.

기하고 있다. 이것은 완행택의 욕구가 외현화 된 것이다. 의붓아비에게 당하고 있을 때 그녀를 보호해줘야 할 어미는 존재하지 않았다. 완행택은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에 대한 어린 시절의 소망충동이 충족되지 못한 것 때문에 병리적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세 번째 딸의 가출은 헤어진 사내가 나타나 홀어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의붓아빠 못된 버릇을 알고 있는’ 딸년이 집을 뛰쳐나간 것이다. 완행택은 어린 딸년이 집을 나간 것이 백번 천번 잘 나갔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어린 딸년한테 에미 노릇 한 번 못 해 본 불쌍한 또 다른 딸년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네 명의 딸은 모두 완행택 현실에서의 딸아이가 아니라 망상 속의 딸아이들이다.

망상¹⁰⁵⁾은 생생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외부 사건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혼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와 대상 간 경계의 불분명함을 초래하고, 또한 자기로 경험되는 측면과 대상 세계로 투사되는 다른 측면으로 자기를 분열시키는 과정을 초래한다. 환자는 하나의 확신으로 시작해서 모든 외적 사건은 그 결론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완행택은 억압적인 아버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충동이 망상 속에서 딸년의 가출로 재현된다. 완행택이 진즉에 의붓아버지의 매질에서 벗어났더라면 그녀의 삶이 이토록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완행택 무의식 속에는 억압적인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은 소망이 어릴 적부터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딸년이 완행택 서사의 첫 번째 딸년 즉 어린 완행택이다. 완행택의 불행은 어미의 자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완행택은 망상을 통해 의붓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증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동적으로 당하고 살아 온 어미에 대해서는 원망과 반발심을 느끼고 있

105) 그레고리 해밀턴, 김진숙 외 옮김, 앞의 책, 186-190면 참조.

다. 망상 속에서 네 명의 딸아이가 가출을 하는 데에도 딸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어미의 삶은 완행택의 삶과 일치한다. 여성의 어머니 되기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와 깊이 결속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머니에게로 회귀해가고자 하는 퇴행의 욕구인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는 것이기도 하다.¹⁰⁶⁾ 완행택은 딸의 환상을 빌어 자신을 못내 가엾어하고 그 딸의 실종을 통해 자신의 실종을 감행하고 있다. 그런 억압이 가능한 것은 그녀의 동성애적 대상 선택이 자기애에 근거를 두었고, 그녀에게 편집증적 망상이 있음을 암시한다. 망상에 빠진 인물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자신의 왜곡된 신념 속에 만들어낸 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만들어낸 자폐적 세계로 침잠해 들어감으로써 외부세계와 단절되는 파국을 맞이한다.¹⁰⁷⁾

완행택에게 발생하는 중요한 또 다른 증상은 동일시이다. 완행택은 자신과 망상의 딸들을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시는 자아가 대상을 선택하는 최초의 방식이다. 대개의 대상선택은 나르시시즘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며 원초적인 나르시시즘으로 ‘퇴행’하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¹⁰⁸⁾ 완행택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망상의 딸은 완행택 자신의 모습이며, 어미와 살고 있는 딸을 찾고 있는 것은 모성 부재에 대한 깊은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아는 이렇게 선택한 대상을 그 자체에 통합시키길 원한다. 완행택과 딸과의 동일시는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이루어졌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사랑 대상을 나르시시즘적 유형과 부모 의존형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나르시시즘적 유형의 사랑 대상은 현재의 자신,

106) 김은하, 「소설에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연구-1970년대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3, 149면.

107) 나소경, 「현대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이청준, 오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07, 144면.

108)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앞의 책, 252면.

과거의 자신,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 한때 자신의 일부였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¹⁰⁹⁾ 완행택이 선택한 대상은 과거의 자신이기도 하면서 한때 자신의 일부이기도 했던 사람이다. 또한 그 딸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자하는 완행택의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완행택에게는 어미가 없다. 무의식 속에 모성 부재의 원망이 숨어 있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 어린 태도는 그들이 이미 오래 전에 포기해버린 그들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다시 부활시키고 재현시키는 행위라는 사실을 또한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상 사랑을 동일시로 대체하는 것이 나르시시즘적 질병에서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완행택에게 최초의 남자인 의붓아버지는 원망,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녀를 성폭행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사내는 학대의 대상, 그녀의 아들은 좌절감을 주는 인물이다. 완행택은 아버지처럼 택시 운전사가 된 아들에 대한 좌절감으로 정신이상이 발병한다. 절대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아래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가부장제 사회의 객체일 따름이다. 완행택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횡적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완행택은 모성 부재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욕구가 좌절 되는 가운데 망상에 빠져든다. 망상의 딸들은 그녀를 대신하여 억압된 원망과 분노를 표현해 주는 한편, 불안을 유발하는 고통스러웠던 경험과 기억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다. 완행택은 망상의 딸과의 동일시로 나타나는 편집증 망상인 정신증을 나타낸다. 즉 자신을 돌봐줄 모성의 부재에 대한 갈망이 역으로 잃어버린 가엾은 딸들을 찾기 위해 겨울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109)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앞의 책, 68면.

다. 사회적 권력과 정신분열증 - 「소문의 벽」

「소문의 벽」은 잡지사 편집장인 ‘나’가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설가 박준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그의 정체와 정신 이상의 원인을 탐색해가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잡지사 편집장인 화자는 자정 무렵의 퇴근길에 자신을 숨겨달라고 애원하는 낯선 사내를 하숙방에 데려오게 된다. 그는 불안, 공포감에 젖어 있는 듯 했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화자를 경계하였다. 자신은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며 황설수설 하였다. 사내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는 공포 때문이다.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첫 번째 불안 발작을 겪은 뒤에 나타난다. 그 후로 불안은 공포증에 의해 억제되지만 보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시 생겨난다.¹¹⁰⁾ 그가 겪은 최초의 불안 발작은 어둠 속의 전깃불과 관련이 있다.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것은 불안 상황이 재현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내는 간밤에 하숙방 근처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박준이라는 인물이었다. 박준은 등단 초기에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최근 1, 2년 동안은 거의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화자는 박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요량으로 정신과 김 박사를 만난다.

“그야 그 환자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했으니까, 그걸 캐물으려는 사람은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마련이지요. 노형께선 아마 그렇질 않았던 게 아닙니까. 도대체 그 환자의 경우 누구에게나 심한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불신감이라든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거부증세 같은 것으로 변해 갔고, 나중엔 그런 것 때문에 대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

110) 지그문트 프로이트, 황보석 옮김, 앞의 책, 255면.

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병실에 들어앉아서도 어떤 땐 꼭 누가 자기를 쫓아와 붙잡아 가기라도 할 듯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환자가 일부러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런 자기 본색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자위행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여겨 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묘한 불안감과 비밀을 지니고 있는 거지요.”¹¹¹⁾

김 박사에 의하면 박준은 심한 피해망상증이 있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까닭 없이 불안에 떨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진짜 증세라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불안을 신경증성 불안과 현실 불안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박준은 현실적 불안 상태에 빠져 있다. 현실적 불안은 외부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예견했던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반응이다.¹¹²⁾ 박준은 그의 소설이 잡지사에 의해 거부당하자 자신의 정직한 진술을 방해하는 정체에 대해 불안감이 증폭된다. 불안감은 개인의 힘이 외부 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느낌에 따라 좌우된다. 또 불안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날수록 개인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박준은 작가로 활동한지 몇 년 안 된 사회적 약자이면서 누구보다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불안에 대해 더욱 민감하며, 억압하고 있는 현실 세계 때문에 강박증에 빠지기 쉽다.

「소문의 벽」은 작중 인물의 의식 심층을 추적하기 위하여 작품 속의 내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는 예술작품은 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 창작이란 무의식의 소망이 의식세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왜곡 위장되어 나오는 소망충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화자

111) 이청준, 「소문의 벽」, 『소문의 벽』, 열림원, 2008, 86면.

112)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흥빈·홍혜경 옮김, 앞의 책, 530면

는 박준의 의식을 따라가기 위해 그가 쓴 소설을 분석해본다. 「소문의 벽」에는 세 편의 소설 <괴상한 버릇>, <벌거벗은 사장님>, <무제(G이야기)>가 내화로 들어 있다. 작중 인물들은 ‘병신스런 엄살쟁이들 뿐’ 하나같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신경과민에 시달리거나 기괴한 버릇에 빠져들고 마는 이들이다.

박준이 화자의 잡지사에 보낸 <괴상한 버릇>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꾸중을 듣거나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면 골방이나 광에 들어가 가사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버릇이 있다. 가사 상태는 일종의 자기최면이라 할 수 있는데 절실한 일, 불쾌한 일이 호흡을 잃어버린 육신과 함께 일시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다. 골방이나 광 속은 고통 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 곧 어머니의 자궁 속을 의미한다. 윤일섭이 불안의 순간 모태회귀를 꿈꾸었듯이 그도 자궁 회귀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주인공은 다시는 깨어나지 말라는 아내의 악담을 들으며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잠을 자거나 가사 상태에 든다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빠지려는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이다. 무의식은 쾌락을 추구하며 불쾌를 조장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억압과정이 발생하여 정신활동을 그 사건으로부터 물러서게 한다.¹¹³⁾ 주인공은 갈등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골방이나 광 속으로 숨어든다. 내적 욕구의 요구가 심리적 안정을 해치게 되면, 생각한 것 또는 소망한 것은 환각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족을 얻어내지 못하고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기관은 외부세계에서 현실적 상황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¹¹⁴⁾ 주인공이 가사 상태로 빠져들었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

113)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앞의 책, 12-13면.

114) _____, _____, 앞의 책, 13면.

가 그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억압의 세상임을 의미한다.

박준이 R사에 보낸 <벌거벗은 사장님>은 현대판 ‘임금님의 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사장의 비밀을 지키려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억압하다보니 신경과민 증세가 생기고 만다.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결국 그는 주의력 결핍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다.

박준은 글쓰기를 통해 억압적인 현실에 적극 대응한다. 그러나 박준의 글쓰기를 통한 자기 진술욕구는 억압하는 권력과 맞닥뜨리게 된다. 박준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의식은 타자에 의해 억압된 상태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타자는 주체의 욕망을 근원적으로 저지시킴으로써 주체의 자율적인 의지를 가로 막는다. 작가로서의 정직한 진술을 방해하며, 그의 정체성을 깨문는 전깃불 뒤의 인물은 안 형과 같은 편협한 문단의 지배자들이다. 그들은 박준의 내면에 용틀임치는 진술욕을 억압한다. 그들은 자신의 기호나 편집을 소문이나 말썽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고 공연한 엄살로 필자의 의식을 조정하려 든다. 안 형의 독선적인 문학관은 ‘벌거벗은 사장님’의 사장처럼 자유로운 진술을 억압한다. 그 결과 박준은 현실적 좌절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증을 불러일으킨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옛날 이발장에게는 ‘구원의 숲’이 있었지만, 현대인에게는 삶의 진실을 지켜 줄 구원의 숲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현실은 현대인의 자기부정의 비극을 잉태함을 암시한다. <괴상한 버릇>이 한 인간의 내면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라면 <벌거벗은 사장님>은 그 비밀을 외면화해야하는 이 시대 작가의 권리나 의무의 양상을 암시하고 있다.

두 편의 소설을 종합해서 박준의 의식을 탐색해보면, 박준은 억압적인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내려는 용기와 결단의 부족으로 인해 정리 내용을 내면화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외부세계의 부정성에 직면해서, 오히려

려 과거의 안락한 상태로 회귀하려 하며 죽음에 가까운 무위의 가사 상태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 같이 폭압적인 현실의 압박과 통제를 고발하고자 하는 박준의 작가적 양심,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박준이 보이는 또 다른 증세는 전깃불에 대한 공포이다. 박준은 어둠을 극도로 싫어하여 밤에 잘 때도 전깃불을 켜 놓아야 잠이 드는 기벽이 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두려워 한 것은 어두운 상태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전깃불이 공포의 근원이었다. 어둠은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일 뿐이다. 전깃불이 작가로서의 진술의 권리를 방해하고, 박준의 의식에까지 침투한 구체적 갈등요인이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¹¹⁵⁾

위 글은 신문에 실린 전깃불과 관련된 박준의 인터뷰 기사이다. 6·25

115) 이청준, 앞의 책, 16면.

전쟁 직후에 경험한 전깃불의 체험이 그를 공포 속에 몰아 넣은 것이다. 외상성신경증은 지나치게 강렬하고 감정에 휘말린 체험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발생한다.¹¹⁶⁾ 박준은 어린 시절에 겪은 전깃불의 공포에 고착되어 외상증신경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외상증신경증의 바탕에는 외상을 가져온 사고 순간에 대한 고착이 깔려 있다. 외상증신경증 환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외부세계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모른 채 현재나 미래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과거에만 매달린다. 박준의 고착 순간에 대한 집착이 그의 작품 속에서 반복 강박 행위로 드러난다.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박준이 쓴 <무제(G이야기)>에도 전깃불 이야기는 반복된다. 박준은 초등학교 4학년 쯤에 6·25를 겪는다. 전란 당시 좌·우익으로 나뉜 세상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양민들에게 어느 편에 속하느냐고 추궁한다. 전깃불 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은 살아남기 위해 좌·우를 선택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환상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심문관에 의해 끊임없이 고문을 받는 G는 현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에 의해 거짓진술을 강요당하는 박준의 심적 경황을 진술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정직한 자신의 초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전깃불의 감시를 당하는 인물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게 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질문과 일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준의 노이로제는 전깃불로 표상되는 편 가르기를 회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다.¹¹⁷⁾ 전깃불 원체험은 박준이 성인이 된

116)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옮김, 앞의 책, 375면.

117) 김승만, 「이청준 소설의 서사 형성 방식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27면.

뒤에도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며 결국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하는 기제이다.

생사를 가르는 전깃불에 대한 원체험은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이 발발하게 되면 의식으로 부상하여 박준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외상증신경증 환자가 꿈속에서 규칙적으로 외상적 상황을 반복하듯이 박준은 그의 소설에서 전깃불 공포에 대한 반복강박 증세를 보인다. 박준의 어린 시절 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군영생활, 가정 생활에서도 전깃불이 수시로 등장하는 것은 외상적 상황의 반복 강박이며, 여전히 그가 외상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전쟁 당시의 흑백논리로 이루어진 현실세계를 어렵게 견디어 온 박준은, 작가가 되어서 자신이 느끼는 시대의 부조리를 밝히려 하나 문단의 지배자에 의해 거부당한다. 오히려 현실은 그들의 이념에 맞추어 작가의 진술을 일치시켜야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정신의 충격과 상처로서의 이중적인 공포성은 그것의 요인이 6·25란 외인성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과 바른 진술이 벽 앞에 차단되어 버린 건강하지 못한 시대적인 상황성을 상징한다.¹¹⁸⁾ 결국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정직한 자신의 초상을 가질 수 없다. 작가는 이를 통해 지배자의 잣대에 맞추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끔찍한 현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피지배자를 억압한다. 그러나 피지배자는 이러한 권력에 저항하여 침묵한다. 박준은 저항의 방법으로 진술거부를 선택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박준의 진술공포증은 진술의 욕망과 감시 장치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자기 진술욕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외부 세력에 항변하지만 박준의 저항 의지는 좌절되고 만다.

118) 이재선, 앞의 책, 239면.

박준이 광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려는 것은 진실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는 현실의 압박 때문이었다.¹¹⁹⁾

박준은 골방·광속에서 가사 상태에 빠졌듯이 이제는 정신병원으로 자신을 유폐시킨다. 정신병원에는 또 다른 지배자 김 박사가 박준의 정체를 밝히려하며, 그에게 전깃불을 들이댄다. 안식처로 찾은 병원의 김 박사는 학문을 맹신하여 의사라는 사회적 위치가 제공하는 권력으로 피지배자를 하나의 치료대상 즉 사물처럼 대하며 박준을 억압한다.

박준은 6·25전쟁 당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깃불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해야하는 공포를 체험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권력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위기 상황은, 시간이 흘러서도 개선되지 않고 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지배한다.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고발로 박준은 열심히 소설을 쓰고 발표하지만, 문단의 지배자는 시대 양심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포장하고는 지면에 실어주지 않는 것이다. 정신병원의 김 박사는 학문으로 포장된 절대 진리라는 허구가 인간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억압당한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타자의 감시 하에서 살아가야하는 지식인의 고달픈 여정을 보여준다.

119) 박준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의 유폐라는 시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은폐라는 시각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화진은 박준의 정신이상이라는 위장행위는 책상 속에 감금당하고 있는 작품을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정신병원으로의 은폐는 곧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화진, 「이청준의 「소문의 벽」 연구-불안의식의 근원과 극복양상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 6집, 안동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11. 15면.

반면 김인경은 박준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해당하지만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 정신분석학적 문제이기에 앞서 사회·집단·문단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김인경, 앞의 논문, 70-71면 참조.

라. 정신증 증상의 의미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승진에서 탈락한 패배감 때문에 주변인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인기피증과 이차적 증상으로 가학성유희욕이 생겼다. 가학성유희욕은 현실 패배에 대한 좌절감을 숨기기 위한 장치이다. 윤일섭이 자기실종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억압과 갈등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의 퇴행욕구 때문이다. 윤일섭의 자기실종은 ‘자신의 쇠창살을 몰래 간직’한 채 일섭에게만 그것을 부수라고 부추기는 의사를 비롯한 모든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복수이자 현실에서는 끝내 이를 수 없었던 소망 충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인간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증의 원인이 단순한 심인론적인 내인성을 넘어서서 시대와 사회라는 외부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겨울 광장」의 완행택은 모성 부재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가운데 망상에 빠져든다. 완행택은 망상의 딸과의 동일시로 나타나는 편집증적 망상을 나타낸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소비와 쾌락으로 은유화 되고, 그 대척점에는 순결이라는 이중의 모순된 잣대가 있다. 여성이 객체가 되는 가부장제 사회의 위계질서가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지켜 본 완행택은 이에 대한 좌절감으로 정신증에 걸린다. 이것은 70년대 한국사회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사회가 여성에게 어떤 정신적 외상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다. 현실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정신적 파산이 한 여성을 망상이라는 황홀과 착란의 의식 세계에 빠지게 만든 것이다.

「소문의 벽」의 박준은 6·25전쟁 당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깃불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해야하는 공포를 체험한다. 가사상태의 잠에 빠져 광 속에서 자신을 유폐하였던 박준은 미치광이로 가장하

여 정신병원에 숨어든다. 정신병원마저도 전깃불의 공간임을 깨달은 박준은 그 곳에서 탈출한다. <괴상한 버릇>의 주인공이 자신을 윤희한 후 죽음을 맞이한 것을 경험한 박준은 정신병원이 죽음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 것이다.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권력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위기 상황은 시간이 흘러서도 개선되지 않고 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지배한다. 박준이 병원을 탈출하는 것은 개인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현실 공간에서, 개인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현실을 암시한다. 작가는 박준을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타자의 감시 하에서 살아야 하는 지식인의 고달픈 여정을 보여준다.

세 편의 소설을 통해 억압적인 외부세계에 대한 저항으로 개인은 정신증이라는 병리적 증상을 드러내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청준은 개인이 정신증에 걸리는 것은 인간을 타자화, 물화시키는 현대사회의 냉혹성,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 때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IV. 병리적 증상의 의미와 작가 의식

본고에서는 인물의 병리적 증상을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프로이트는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해 신경증은 자아와 이드 사이에 생겨난 갈등의 결과인 반면 정신증은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난 비슷한 장애의 유사한 결과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히스테리, 우울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은 신경증의 하위 개념이고 정신분열증과 편집증은 정신증의 하위 개념이다.

1장은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에 이르는 인물에 대한 고찰이다. 이청준의 작중인물들은 이질적인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어느 한 편의 질서 체제를 옹호하거나 선택하지 못하고 언제나 모순과 방황 속에 분열을 일으킨다.¹²⁰⁾ 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와 반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 다른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지만 똑같은 자기에라도 자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것을 긍지로 나타낼 수도, 연민으로 나타낼 수도, 더 나아가 혐오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귀향 연습」은 어머니의 가학성과 이로 인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 불안정-혼란 애착을 경험한 지섭이 내적 갈등으로 인한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생하는 이야기이다. 지섭이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짊어져야 할 과제임을 깨닫고 서울살이로 되돌아간다는 결말을 통해, 이청준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머니와 동일시되는 고향이 인간의 근원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고향이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면의 꿈」은 어릴 적부터 천재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120) 오생근, 앞의 책, 144-145면.

받고 성장한 명식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이다. 명식은 중년이 되어 잊어버린 내면세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심혼의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다. 이청준은 명식이 중년이 되어 잊어버린 내면세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심혼의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다는 결말을 통해 가면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영원한 가면의 꿈을 잉태하지만, 그것이 현실 저편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극성을 환기할 뿐임을 드러내고 있다.

「석화춘」은 석화춘이라는 섬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별네와 거무가 바다로 나가 동반 자살을 하는 이야기이다. 그녀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동일시에 따른, 아버지를 따라 죽은 어머니에 대한 선망과 사랑의 양가성 때문이다. 결국 별네의 죽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어머니와의 동일시 때문이며, 거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투사적 동일시 때문이다. 별네의 죽음은 긴장이 없는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죽음충동 때문이다.

소설을 통해 현실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듯한 양상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외면적 자아와 내부적으로 반란을 도모하는 내부적 자아의 분열된 양상은 히스테리, 우울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의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내적 갈등으로 인간은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며, 자아가 이드의 충동과 외부세계의 요구를 조절하는 데 실패할 경우 신경증은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다.

2장에서는 개인적·사회적 억압으로 인하여 정신증에 이르게 되는 인물을 분석하였다. 사회나 집단, 제도나 조직이 개인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마당이 되지 않고 억압 기제로 작용할 때, 개인의 상처는 아득하게 깊어지게 마련이다.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조직 속에서 안전을 갈구하는 개인의 욕망

이 좌절되었을 때 인물의 불안심리가 작동하는 것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유능한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윤일섭이 사자우리로 자신을 유쾌하는 결말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안전하고, 개인을 보호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쇠창살로 이분화 된 경쟁사회의 승자와 패자 구도는 안전에 대한 인물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윤일섭이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된 것은, 안전을 갈구하는 소시민의 소망충동을 무참히 짓밟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냉혹성과 인간소외 현상에 대한 작가의 경고임을 알 수 있다.

「겨울 광장」의 완행택은 모성 부재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가운데 망상에 빠져드는 인물이다. 완행택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으로 억압받고, 당당한 주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물화된 객체이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의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정신증에 이른다. 이를 통해 이청준은 70년대 가부장제 사회가 객체화된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소문의 벽」 박준이 미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전깃불과 같은 감시 체제, 사회적 권력을 지닌 인물들이 자신들과 이념이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 앞서 지식을 앞세워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이 개인을 정신증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박준이 정신증에 빠지게 되는 과정의 서술을 통해 이청준은 정직한 진술 욕구를 억압하는 통제된 사회의 규격화 또는 편협한 잣대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낸다. 현실의 감시체계를 벗어나 안락함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조차 가지지 못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작가적 양심으로 고발하고 있다.

「황홀한 실종」, 「겨울광장」, 「소문의 벽」은 억압적인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정신증에 걸리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억압하는 현

실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저항한다. 저항에만 골몰하고 저항 너머의 자유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저항은 개인적 불행에 대한 자각에 멈추고 만다. 이들의 저항이 사회적 각성을 일으켜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실패한다. 세 편의 소설은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 현상에 저항하는 인물군의 형상화에는 성공했지만, 이들의 저항이 정신증 증세로 마무리되어 사회변혁에는 이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세 편의 소설을 통해 70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을 억압하는 외부세계 때문에, 개인은 정신증에 걸리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실패의 자기 기호를 서사적으로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이청준이 절정한 기본틀은 ‘억압하는 현실’과 ‘상처받은 개인’의 이항대립이다.¹²¹⁾ 이청준은 개인이 정신증에 걸리는 것은 인간을 타자화, 물화시키는 현대사회의 냉혹성,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에 기인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갈등 때문에 정신증이 발생한다면, 자아와 이드의 내적 갈등으로 신경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경증은 한 인간의 내면적 갈등으로 발생하지만, 외부세계와의 상관성으로 인해 내적 갈등이 더욱 촉진됨을 알 수 있다. 즉 정신증 뿐만 아니라, 신경증 또한 사회적 맥락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이청준의 여섯 작품에 한 개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황홀한 실종」, 「소문의 벽」, 「귀향 연습」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한 사건이나 불안¹²²⁾, 공포 등의 심리가 후에 신경증·

121) 우찬제, 「악의 없는 자유의 꿈을 향한 언어조율사의 반항적 탐색」,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333면.

122) 카렌 호나이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불안할 때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애정을 구하거나 의존·복종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접근형,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적대시하는 행동을 통해 자기를 방어하는 저항형, 사람들을 피하거나 숨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회피형이다. 「소문의 벽」의 박준,

정신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 세 작품은 어린 시절 원체험에 대한 인물의 직접 회상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윤일섭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비오는 산길에서 길을 잃은 해맨 경험, 박준은 6·25전쟁 당시 겪은 전깃불에 대한 공포, 지섭은 산비탈 밭머리 말에 묶인 채 어머니의 웅얼거리는 슬픈 노랫 자락을 들으며 배가 고파 울다가 잠든 경험이 있다.

윤일섭은 이때 경험한 불안한 상황에서의 퇴행욕구는 잠재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심리가 증폭하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박준의 전깃불에 대한 공포는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는 억압요소이며, 전깃불을 이용한 정신과 치료에 진짜 미치고 만다. 지섭 또한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욕구 불만은 그의 심리에 내재되어 어머니로 표상되는 고향에 여전히 반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고향이 있으면서도 고향을 잃은 실향민 신세이다. 이 세 작품의 인물 분석을 통해 어린 시절의 소망 충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충격적인 원체험은 계속 인물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신경증·정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겨울광장」, 「석화촌」은 여성 작중 인물의 신경증·정신증에 관한 소설이다. 「겨울광장」의 완행택이 정신증에 이르게 된 것은 자아를 억압하는 외부세계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패배한 뒤 생겨난 증상이다. 완행택을 보호해주는 여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의붓아버지·남편·아들은 완행택의 본능적 욕구를 무시하고, 강압적·폭력적 지배자가 되어 완행택을 불행에 빠뜨린다. 「석화촌」의 별네는 부모가 연이어 죽음을 맞게 되자, 어머니와 자신의 동일시, 거무와의 투사적 동일시로 거무와 함께 동반 자살을 감행한다. 완행택은 자아와 억압적인 외부환경과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만, 혼자서 이겨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가면의 꿈」의 명식은 회피형으로,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 「석화촌」의 별네는 저항형, 「겨울광장」의 완행택은 접근형으로 나눌 수 있다. 김유숙 외 옮김, 앞의 책, 118면.

완행택이 정신증이라는 질병에로의 도피를 하는 소극적 여성이라면, 별네는 스스로 동반자살의 대상 선택, 죽음 준비, 죽음을 감행하는 적극적 여성이다. 「겨울광장」, 「석화촌」의 여성 작중 인물의 분석을 통하여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는 여성의 경우 더욱 능동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문의 벽」, 「가면의 꿈」, 「황홀한 실종」을 통해, 인물이 내적욕구와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신경증·정신증이 발병함을 알 수 있다. 「소문의 벽」의 박준은 문단에 등단하여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잡지사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품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준은 작품을 통한 강한 진술욕구가 거부되자, 자신을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정신 병원에 유폐시키고 정신분열증 환자 노릇을 자처한다.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은행원이 되어서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 승진하고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된다. 안전에 대한 자기 기준인 쇠창살에 대한 의식의 전도로 사자 우리에게 자신을 유폐시키는 기행을 벌인다. 「가면의 꿈」의 명식은 판사로서의 역할과 자연인으로서의 자신 사이에 내적부조화가 생기게 되자, 이 괴리감을 메우기 위해 변장을 통해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간극을 메우지 못하게 되자 자살을 감행한다. 이상 세 편의 인물 분석을 통하여 인물들이 내적욕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할 때 인간은 신경증·정신증을 드러내게 됨을 알 수 있다.

V. 결론

70년대 군부독재체제는 지배 권력에 의한 감시와 처벌의 비인간적인 시대였다.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지배 권력은 이탈하려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더욱 엄중한 감시와 잣대를 들이대며 개인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 때문에 70년대 들어, 이청준은 개인적 환부를 통해 사회·역사적 아픔을 표출하는 문학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은 동시대 사람들의 무의식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전제 하에, 70년대 이청준소설의 인물 분석은 억압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70년대 이청준 중단편 소설 중 「소문의 벽」(1972), 「가면의 꿈」(1972), 「석화춘」(1972), 「귀향 연습」(1972), 「황홀한 실종」(1976), 「겨울광장」(1979)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인물의 병리적 증상과 원인을 탐색하였다.

Ⅲ장 1절은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에 이르는 작중 인물에 대한 분석이다. 현실원칙을 따르는 자아와 쾌락원칙을 따르는 이드의 갈등으로 개인은 자아의 분열이 발생한다. 또한 자아와 이드의 내적 갈등은 외부세계를 대변하는 초자아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자아의 분열을 드러내는 인물은 다양한 모색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와의 결합을 회구하지만, 그 세계 속의 질서와 규범 적응에 실패한다. 이들은 세계와의 정면충돌이나 전복양상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세계와의 단절, 동반자살, 자살의 마당에 서게 된다. 이것은 현실과 사회는 개인적 삶의 실현 혹은 개성화 욕망을 저해하고 차연시키며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2절에서는 억압적인 외부 세계 때문에 정신증에 이르는 인물에 대한 탐

구이다. 이청준 소설에서 억압은 사회와 개인,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전자가 후자에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양상은 폭력적이며 개인은 정신적 외상을 입고 고통 받는다. 이들은 억압하는 현실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저항한다. 인물들은 저항에만 골몰하고 저항 너머의 자유에 대한 의지, 개인적 저항을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실패한다. 따라서 이들의 저항은 정신증이라는 개인적 불행에 대한 자각에 멈추고 만다. 이들 저항이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세 편의 소설은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 현상에 저항하는 인물군의 형상화에는 성공했지만, 이들의 저항이 정신증 증세로 마무리되어 사회변혁에는 이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인간은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갈등 때문에 정신증이 발생한다면, 자아와 이드의 내적 갈등으로 신경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경증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갈등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상관성으로 인해 내적 갈등이 더욱 촉진됨을 알 수 있다. 즉 정신증 뿐만 아니라 신경증 또한 사회적 맥락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으로 이청준 소설 속 작중 인물에 대해 분석하였다. 작중 인물을 신경증에 이르게 하는 내적분열 양상은 고향을 떠난 개인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히스테리, 자유를 꿈꾸는 자아와 가면으로 대변되는 초자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한 어머니와의 동일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증에 이르게 하는 억압 기제는 현실에서의 패배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욕구,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비-남편-아들로 이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압행위, 상대를 알 수 없는 감시체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여섯 편의 작중 인물 분석을 통해 첫째, 어린 시절의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 충동이나 충격적인 원체험은 계속 인물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신경증·정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는 여성의 경우 더욱 능동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내적욕구와 현실과의 부조화로 인간은 신경증·정신증에 걸리게 됨을 알 수 있다.

소설 속에 묘사된 개인을 억압하는 세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개인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닫힌 사회 구조 등 그 양상이 다양하다. 억압적인 외부세계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욕망을 억제시킨다.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은 여러 가지 병리적 징후를 나타내며 무언의 항거를 한다. 요컨대 이청준 소설의 주요 갈등은 억압하는 현실과 상처받은 개인 사이의 이항 대립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소설에서 작중인물의 병리적 증상은 갈등 국면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의 과정이며, 그 일환으로 신경증·정신증을 내보이고 있다.

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정신분석한 결과, 인간의 내면은 내적 정신세계의 불일치로 인한 부조화, 개인과 외부 세계와의 대립으로 인간의 내면은 피폐화 됨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억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망상, 자기 실종, 죽음으로 도피한다. 이것은 이청준의 관점이 심층적이고, 탐구적이며, 반성적임을 잘 나타낸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개인의 병리적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억압기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개인의 소망충동이 이루어질 여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특정작품에 한하여 연구가 활발한 단점이 있다. 작가가 개인의 병리적 징후에 대해 깊이 천착해 온 점을 들어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이청준, 『가면의 꿈』, 열림원, 2002.

_____, 『눈길』, 열림원, 2008.

_____, 『병신과 머저리』, 열림원, 2008.

_____, 『소문의 벽』, 열림원, 2008.

_____, 『예언자』, 열림원, 2001.

_____, 『이어도』, 열림원, 2008.

2. 단행본

고영석 엮음, 『자본주의 사회와 인간욕망』, 문학동네, 2007.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김덕영, 『프로이트, 영혼의 해방을 위하여』, 학지사, 2004.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길, 2008.

김유숙 외, 『자기실현과 정신건강』, 학지사, 2007.

김윤식, 『우리시대의 소설가들』, 강, 2009.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김치수 외, 『이청준론』, 삼인행, 1991.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박찬부, 『기호·주체·욕망』, 창비, 2007.

_____, 『현대정신분석 비평』, 민음사, 1996.

- 신현균, 『신체형 장애-아무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다면』, 학지사, 2000.
- 양선규, 『한국현대소설의 무의식』, 국학자료원, 1998.
- 우리어문학회(편), 『한국문학과 심리주의』, 국학자료원, 2001.
- 우찬제,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 이동하,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4.
- 이상우, 『현대소설론』, 양문각, 1993.
- 이승준, 『이청준소설 연구-정신분석학 관점에서』, 한국학술정보, 2005.
- 이승훈(편),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이재선, 『한국 현대소설사』, 민음사, 1996.
-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04.
-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8.
- _____,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1.
- _____, 『춤추는 사제』, 열림원, 2002.
- 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 현대문학, 2005.
- 차혜영, 『한국현대소설의 주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4.
- 최창호,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동녘, 1996.
- 최정운 외, 『이상심리학』, 학지사, 2006.
- 한순미, 『가(假)의 언어-이청준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9.
- 허창원 외, 『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 민음사, 1997.
- 그레고리 해밀턴, 김진숙 외 옮김,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7.
- 낸시 맥윌리엄스, 정남운·이기련 옮김, 『정신분석적 진단-성격구조의 이해』, 학지사, 2008.

- 레슬리 스티븐슨 · 데이비드 헤이버먼, 박중서 옮김,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갈라파고스, 2006.
- 마이클 제이콥스, 이용승 옮김, 『지그문트 프로이트』, 학지사, 2007.
- 미국정신분석학회(편), 이재훈 외 옮김, 『정신분석 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 미돌 세인트 클레어, 안석모 옮김,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9.
- 미셸 푸코, 박혜영 옮김, 『정신병과 심리학』, 문학동네, 2004.
- 샬던 캐시던, 이영희 외 옮김, 『대상관계 치료』, 학지사, 2005.
- 알랭 바니에, 김연권 옮김, 『정신 분석의 기본 원리』, 숲, 1999.
- 제이 그린버그 & 스테판 밋첸, 이재훈 옮김,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조시 코언, 최창호 옮김, 『How to Read 프로이트』, 웅진지식하우스, 2007.
- 줄리아 크리스테바, 박선영 옮김,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아난케, 2006.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명희 옮김, 『늑대 인간』, 열린책들, 2004.
- _____, 김미혜리 옮김,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2004.
- _____,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 _____, 박성수 한승완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9.
- _____, 윤희기 · 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0.
- _____, 임홍빈 · 홍혜경 옮김,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2004.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옮김,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2004.

_____, 황보석 옮김,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 열린책들, 2004.

토마스 브로니쉬, 이재원 옮김, 『자살』, 이끌리오, 2002.

폴 흄즈, 송종용 옮김, 『현대정신분석과 심리극』, 백의, 1998.

3. 학위 논문

고귀옥, 「이청준 소설 작중 인물의 정신병적 증후와 문학적 의미 연구-「병신과 머저리」, 「황홀한 실종」, 「조만득 씨」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성경, 「이청준 소설 연구-외디푸스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1.

김승만, 「이청준 소설의 서사 형성 방식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김유석, 「이청준 초기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은하, 「소설에 재현된 여성의 몸담론 연구-1970년대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3.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조세희, 최인호,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한성대 박사학위논문, 2008.

나소정, 「현대 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이청준, 오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07.

마희정, 「이청준 소설 연구-탐색대상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충북대 박사

학위논문, 2004.

오윤정, 「라캉적 분열 주체와 가면의 논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이미경, 「이청준 소설 연구-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의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7.

이상은, 「이청준 초기소설 연구-「병신과 머저리」, 「소문의 벽」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6.

이승준, 「이청준 소설의 현실대응방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4. 일반 논문 및 평론

권택영, 「증상으로 읽는 이청준 소설」,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제 4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3.

_____, 「이청준 소설의 중층 구조」,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원출처: 『이교도의 성가』 해설, 1988)

김인경,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1970년대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 26집, 한성대학교출판부, 2007.

김인호, 「몸으로 알아가는 타자의 아픔」, 『춤추는 사제』, 열림원, 2002

김현, 「장인의 고뇌」,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1.

서경원, 「죽음의 Initiation적 樣相-李清俊 小說을 中心으로」, 『어문교육논집』 5, 부산대학교국어교육과, 81.7.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원출처: 『문학과사회』 1990, 여름)

오생근, 「간혀있는 자의 시선」,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원출처: 『문학과지성』, 1974 가을)

- 우찬제, 「탈난 개인의 변주」, 『가면의 꿈』, 열림원, 2002.
- 우찬제, 「힘의 정치학과 타자의 윤리학」,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8.
- 이동하, 「유신시대의 소설과 비판적 지성」,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 이승준, 「이청준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 『이청준소설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 이재선, 「현대소설의 병리적 상징」,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 이화진, 「이청준의 「소문의 벽」 연구」, 『인문과학 연구』 제 6집, 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정과리, 「용서, 그 타인됨의 세계」,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원출처: 『겨울 광장』 해설, 1987)
- 최종배·조두영, 「이청준 연작소설 ‘남도사람’에 대한 정신역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35권, 제6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6.